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임형재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일본한국어교육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한국어교육학회의 2023년 특별 국제학술대회이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35차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의 관서·관동지역 재일본한글학교연합회와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한국어교육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과 나고야 총영사관의 김성수 총영사님,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를 위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를 보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일본의 한국어 교육, 그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규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한국어 교육 정책의 흐름과 교원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국어원 정희원 실장님의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준비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분과에는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주제를 비롯해서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과 일·한 통번역 연구, 한국어 교육 정책, 한국어 교재개발 연구 등의 분과가 마련되어, K-Teacher 기획 분과를 포함, 모두 10개 분과에 35명의 연구자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학술대회 행사로 준비해주신, 두 학회의 임원들과 준비 위원회 분들의 지난 6개월 동안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어 교사 교육을 주제로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일본 한국어교육학회 문희진 회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일본 관서지역 한글학교연합회 이은숙 회장님과, 관동지역 한글학교연합회 서명환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나고야에 모여,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두 나라의 한국어 교육 발전의 작은 발자국으로 여러분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임형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문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및 일본한국어교육학회의 특별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일본한국어교육학회 임원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학회가 MOU체결후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단히 뜻 깊은 국제 학술대회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열성으로 준비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본한국어교육학회의 임원 및 회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를 빛내주실 내외 귀빈 여러분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김성수 총영사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정희원 실장님, 전류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교수님, 관동지역 재일본한글학교연합회 서명환 회장님, 관서지역 재일본한글학교연합회 이은숙 회장님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고 또한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해 주신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자율화 되고난 이후 즉 에프터코로나 시대하에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어교육 연구자분들이 일본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에 계신 한국어 교육자여러분이 전세계적으로 일본이 한국어 교육기관과 학습자가 제일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방향과 교육자들이 가진 문제등을 토론하며 파악함으로써 양국의 교육자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공헌 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특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한국어교육과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문희진

축 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및 일본한국어교육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가 나고야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회장님, 일본한국어교육학회 문희진 회장님을 비롯하여 금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K-POP, 영화, 드라마, 음식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아울러, 일본 지역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정착한 재일동포 분들의 한국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각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더 많은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나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교류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금번 학술 대회가 해외 한국어 교사 육성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관련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일본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김성수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5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원 양성을 지원하고자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인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일본한국어교육학회를 비롯하여, 재일본한글학교 관서지역협의회, 재일본한글학교 관동지역협의회 등이 함께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큼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본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일본 지역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 교육 현장의 지원 및 실천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K-티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사 지원 방안,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5차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해외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5개국 47명의 한국어 연구진들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한 토론의 자리에 모이게 되어 더욱 반갑고 의미가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교류의 장을 열어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를 비롯한 일본한국어교육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국어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세종학당 선생님을 통해서 학습자가 판소리 소리꾼이 되고 경기민요 전수자가 되며, 교수가 되고 미래의 국제 교류 전문가를 꿈꾸게 되는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어 교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우리 연구자들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가 됩니다.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효율적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한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교원연수센터를 통해 실제 교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워크숍이나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사들이 최신 교수법을 습득하고, 서로의 교육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실시해온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덕분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능숙한 교원으로 활동하는 세종학당 교원 비율이 작년에도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원 양성과 재교육에 힘써온 세종학당재단은 교원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함께, 해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 35차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회장님과 학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주제 발표 I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 현황과 전망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 현황과 전망

하세가와 유키코(전 규슈산업대학 교수)

1. 들어가며

지난 20-30년을 돌아켜 보면 발표자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같은 처지의 한국어 교사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 교사 교육이라는 주제를 보니 어딘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본 발표에서는 그 허전함의 원인과 경위를 살펴보고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바를 논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한국어 교육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표자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로부터 약 50년에 걸친 한국어 교육의 개요를 학습자 층과 그 시대의 분위기로 나누어 간단히 표1에 정리해 보았다. 이정도 있을 수 있으나 발표자가 50년 가까이 실제로 보고 느낀 바가 이렇다.

표 1 지난 50년간의 일본의 한국어 교육/학습자 개관

	학습자 층	사회적 분위기
1970-80년대	재일 한국인, 사회운동가, 매니아	소외된 소수파.
1990년대	민간교류 확대로 한국어 교육기관 증가.	소박한 호기심의 대상.
2000년대	한류 붐으로 학습자 급증.	한국에 대한 동경심. 혐한류가 싹틔.
2010년대	2차 한류, 3차 한류로 팬층이 저연령화. SNS 보급으로 독학자 증가.	아이돌에게 열광. 헤이트 스피치 횡행. →금지법으로 잠잠해짐.
2020년대	코로나 사태로 Online학습이 정착. 자율학습 확대, 고급 학습자 증가.	No Japan이 걱정거리. 정권교체로 분위기 업 될까?

1970-80년경에 한국어를 배우던 사람들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한반도 출신이거나 한반도 출신자와 이웃하는 사람들 등, 개인적으로 한반도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사회운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어 매니아 혹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등이 대부분이었다. 발표자 자신은 외

국어 매니아에 속하는데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고 특히 한국어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것도 좋아서 대학의 전공 언어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어를 조선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민단(대한민국 거류민단 : 당시)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관련 학교 및 기관을 제외하면 몇몇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공공단체, 사회공헌단체 등, 영리 목적인 아닌 매우 한정된 곳밖에 없었다. 그만큼 한국어 학습은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영위였으며 완전한 소수자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엔화 상승으로 해외여행이 수월해진 일본 사람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어 자연스럽게 한일 민간 교류가 진전되었다. 발표자가 한국어를 처음 가르친 것은 1989년으로, 마침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였다. 90년대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 대한 소박한 호기심에 차 있었고, 음식이 맛있고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남아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2년 한일축구월드컵대회에 이어 2004년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한류 붐에 학습자가 급증하여 우리 한국어 교사들은 깜짝 놀라곤 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학습자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였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붐의 중심에 있던 중장년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 영향은 나중에 그들의 자녀 세대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그런 한국에 대한 분위기 변화에 반발심을 품은 사람들이 ‘혐한류’라는 개념을 유포시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2차 한류가, 후반에는 3차 한류라 불리는 붐이 불어닥쳤는데 그 때마다 팬층이 저연령화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정 내의 대 한국 분위기가 아이들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2년경부터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어린 학생들은 한국 아이들에 열광하는데 한국인 거주지 근처 길거리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횡행하는 이상 형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면서 그 혐악했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는 사이 SNS 등 IT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한국어 학습을 진전시키는 독학자들이 늘기 시작한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도 제한되고 할 수 없이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자율학습이 확산된 결과인지 학교 수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미 중고급 실력을 갖추게 된 학생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과 이미 꽤 많은 것을 아는 신입생이 같은 교실에 있는 상황은 교실 운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한국의 No Japan 운동으로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2020년 봄학기를 많이 걱정했으나 학습자들에게는 별 느낌이 없었던 듯, 한국어로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새 대학 등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과 맞물려 정확한 파악이 어렵긴 하지만 학습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았다.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것을 계기로 한일 간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한국어 교사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학습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말을 알아들으려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날이다.

3.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 현황

일본에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은 60년대 이래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이른바 ‘국어교사’가 일본 현지의 재일 한국인

교사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교육’을 맡은 교사에 대한 교육으로, 90년대 이후 일본인 혹은 일본의 기관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그런 교사 연수에 참가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아무래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본 국내 기관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교육 기관의 성격상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논의해야 한다.

하나는 초·중·등교육기관(여기서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양성과 재교육인데 일본 정부인 문부과학성 ‘교원면허증’ 제도에 의거한 교사 교육이며, 또 하나는 대학이나 시·만·강좌를 비롯한 ‘그 외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양성과 재교육이다.

3.1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교육

먼저 전자 즉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한국학 전공 과정이 있는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주어진다. 현재 교직면허증 취득 요건은 2019년에 개정되어 교육 및 교직에 관한 과목 등 18학점과 교과목 및 교과목 지도에 관한 과목 24학점 이상 및 교육실습 5학점 외 학점을 합해서 59학점으로 되어 있다. 교과목 및 교과목 지도에 관한 과목이란 한국어학, 한국문학,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이문화이해, 한국어 교수법 등이다.

2022년도에 한국어(조선어, 한국조선어) 교원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에 6개교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라는 교과목이 없고, 영어 외의 외국어는 선택과목 중 하나로 한 학교 당 1,2 시간 내지 많아야 6 시간 정도밖에 설정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시간강사 혹은 타 과목 담당 교사의 겸임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이 정식 채용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한국어 교원면허증만 취득해도 교원 채용의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직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교원의 정식 채용이 3~5년에 1, 2명씩 이뤄지는 것이 오사카부(大阪府)로, 현재 7, 8명 정도의 한국어 교원이 있는데 이들은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으나 한국어에 특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사카부 내 혹은 그 외 지역의 시간강사 등과 함께 자체적인 스터디모임이나 한국교육원의 연수나 나중에 논의할 학회 주최의 한국어 교사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허증 소지자 부족 문제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한국어 수업을 설치하는 고등학교가 늘면서 매우 심각해졌었다. 고등학교한국조선어교육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면허증 없거나 기한부인 특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때는 이 네트워크가 한국어 전공과정이 있는 간다외어대학과 덴리대학의 협조를 얻어 문부과학성 인정하는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특별강좌’를 2001~2003년도와 2006~2007년도 2차례 실시하여 약 50명의 한국어교원면허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이렇게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써온 제1세대가 지금 은퇴할 시기가 되어 또 다시 고등학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족 사태가 벌어질 지경이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정부의 교원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본의 공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통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격이나 지식이 있는 교원이 전혀 없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텅그러니 채용되면 그 학교 내 혹은 그 지역 내의 한국어 교육 위상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 고등학교 외의 한국어 교사 교육

고등학교 외의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이렇다 할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세종학당 등 한국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를 중요시할 것이고, 대학 등에서 시간강사를 뽑을 때도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는 자격증 소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어느 정도 자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교사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뿐더러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무릇 교사란 가르치면서 자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의문이 생겼거나 지도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물어보고 의논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장이나 자료가 중요하다.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학교, 지자체, 어학원 할 것 없이 한국어 수업이 급증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어 교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대학 교원들도 한국어교육이 전공인 사람은 몇 없었기 때문에 간사이에서는 일단 ‘조선어교육연구회’라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었다. 도쿄에서도 그 당시 김동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던 것으로 안다.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 비전문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교육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던 중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한국문화원이 지원에 나서 주었다. 간사이에서는 조선어교육연구회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고, 도쿄에서는 조선어연구회가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한국의 한국어학자도 초청해서 2004년부터 여름 방학마다 1주일 정도의 집중강의를 실행하였다. 2004년에 개최된 제1회 교토 연수와 제 1회 도쿄 연수의 프로그램을 표2, 3에 소개하겠다.

표2 2004년 제1회 교토 연수 프로그램 * () 안은 담당자

8 월 2 일	I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유타니)	8 월 5 일	I 한일대조언어학2: 조사·어미·어휘 (유타니)
	II 일본의 한국어 교육사 (아마다 간토)		II 한일대조언어학3: 오류분석 (유타니)
	III 음운론 개설·전서법 (송철의)		III CAI입문 (유타니 유키토시)
	IV 형태론 (송철의)		IV 교수법 (김수정)
8 월 2 일	I 통사론 (임흥빈)	8 월 6 일	I 평가론 (김수정)
	II 의미론 (임흥빈)		II 실러버스 작성법 (김수정)
	III 어기설 (우치야마 마사 하루)		III 시청각교재 사용법·수업 운영법 (하세가와)
	IV 북한의 언어와 언어 정책 (고영진)		IV 발음 교육 (하세가와 유키코)
8 월 2 일	I 회화 지도법 (오대환)	8 월 7 일	I 교육 실습 1 (수강생 발표)
	II 쓰기·글짓기 (오대환)		II 교육 실습 2 (수강생 발표)
	III 듣기 (오대환)		III 교육 실습 3 (수강생 발표)
	IV 한일대조언어학1: 한자음 (유타니 유키토시)		IV 교육 실습 4 (수강생 발표)

표3 2004년 제1회 도쿄 연수 프로그램 *() 안은 담당자

8 월 23 일	I 일본의 한국어 교육의 현재 (노마 히데키)	8 월 26 일	I 북한말 (정희원)
	II 교재론: 선택과 작성 (노마 히데키)		II 정서법 교수법 (정희원)
	III 발음 실습: 단음에서 음운까지 (강현화)		III 한자음과 한자어 교수법 (이토 히데토)
	IV 쓰기 교수법 (강현화)		IV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사와 유형론 (이토)
8 월 24 일	I 문자와 발음 교수법 (조의성)	8 월 27 일	I 말하기 교육: 담화론적 접근 (김진아)
	II 문법: 조사 교수법 (남윤진)		II 말하기 교육2: 언어행동 (오고시 나오키)
	III 문법2: 용언의 활용형 교수법 (노마 히데키)		III 교육 실습 1 (노마 히데키 + 김진아)
	IV 교육실습 워크샵, 교수법 (노마 + 남윤진)		IV 교육 실습 2 (노마 히데키 + 김진아)
8 월 25 일	I 어휘: 동사 교수법 (강현화)		
	II 어휘2: 형용사와 부사 교수법 (강현화)		
	III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예절 (정희원)		
	IV 읽기 교수법: 정확성을 위해 (이토 히데토)		

한국어학의 각 분야의 기초지식과 교수법, 그리고 교육 실습을 중심으로 과목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간사이와 도쿄에서 따로 열고 2007년에는 두 연수회를 통합해서 개최하였으며, 그 후 2013년까지는 도쿄와 간사이 이외의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여 첫회 이래 매년 수십 명이 참가했다. 연수를 받고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며 언어학의 전문적인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았지만, 수강생끼리 토론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며, 사후에는 개별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해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때 교사 교육을 담당했던 한국어 연구자들이 집필한 “한국어교육논강좌”(노마 히데키 편저, 전 4권, 구로시오출판사)도 이 시기 일본의 한국어 교육계의 큰 성과라고 본다.

마침 비슷한 시기인 2005년 한국에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어 교사 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책정되었으며, 2010년경 이후 일본의 한국어 교사 지망생들과 현역 교사들이 한국 대학에서 열리는 교원양성과정에 유학을 가거나, 온라인 과정에 등록하기도 해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도쿄의 세종학당에서도 한때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이 열렸으나 온라인 과정이 보급한 탓인지, 몇 년만에 중지되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 연구회 등에 의한 한국어교사연수도 열리지 않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일본 국내의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은 1990년도 말부터 약 15년간의 시행착오 시기를 거쳐 나름의 성과를 냈으나, 결국은 한국의 각 대학에서 실시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등으로 흡수된 셈이다.

현재는 주로 대도시에 있는 대규모 어학원이나 대학 등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어 교사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종전부터 한국문화원이나 한국교육원에서 실시되어 온 한국어 교육학 강의나 문화론 강의를 듣는 것을 통해 교사 자질 향상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4. 한국어 교사 교육의 과제

이상과 같이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는 여러가지로 외형적인 문제가 있어 사실은 한때보다 수그러져 버린 느낌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한국어 교사 교육의 대부분은 한국 대학 등의 한국어교사연수과정에 의지하고 있는 셈인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오랜 학습자이기도 한 발표자가 종전부터 한국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해 느껴 온 몇 가지 위화감을 밝히고자 한다.

4.1 일본의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

발표자가 위화감을 느껴 온 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한국 외의 나라에 사는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 교사에게 한국 특유의 감각이나 정서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나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를 보면 한국에 살아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응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한국적인 정서나 응답 스타일을 제시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몇 퍼센트가 앞으로 한국에 살 일이 있느냐 하면 아마 한 자리 수 이하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본에 사는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때 한국어의 발음, 문법, 표현, 이해 등이 한국인처럼 된다면 학습자로서 좋아할 일이지만 그 발신 내용과 감각까지 한국인과 똑같을 필요는 없고 학습자의 아이덴티티에 근거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똑같이 되고 싶어한다든가 그러고 싶은 시기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발표자도 한때 한국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 적이 있었다. 또 그런 시기가 있어야 언어 구사능력도 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되기를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 더구나 그 사람이 한국에 산다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 배우면 되는 것이지 한국 외에 사는 학습자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이른바 ‘표준어 규정’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 사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일 텐데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나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단어나 표현, 표기가 표준적이지 않다고 해서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는 원래 정확성이나 유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표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주 접하는 말이나 표기 등을 어렵게 외워서 썼더니 표준적이지 않으니 다르게 하라고 하면 학습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뭘뭘 하기 바래요’는 ‘바라요’가 옳다, ‘갈려고 한다’는 ‘가려고 한다’라고 해야 한다, ‘다음주’는 붙여 쓰지 말고 띄어 써야 한다 등등. 학습자에게 이들 표현이나 표기가 훨씬 익숙하고 그것을 썼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말것이다. 그런 것을 고치느니 더 쓸만한 표현들을 익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이 아닌가 한다.

물론 학습자의 목적이 아름다운 표준어를 익히겠다든가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문제는 다르다. 요컨대 학습 환경과 학습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학습자를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규범성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학습자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시점이 교사 교육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4.2 새로운 문제의 부상

이 몇 달 사이에 chat GPT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행정이나 경영,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chat GPT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은데 언어 교육계에는 이미 자동번역기 사용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번역기 이용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금지시킬 것인가.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본의 한국어 교육계에서 동의된 바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발표자는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외국어 교육의 목적 중 하나에 ‘지적 단련’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지만 의사소통에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경우라도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고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뇌가 단련을 받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이다. 라틴어가 바로 그렇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영어에도 원래 그런 효과를 노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어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 쉬운 말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어느 나라 말이든 웬만한 내용을 번역기만 있으면 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외국어를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된다. 더구나 일본에서 (일본어 환경에서) 1주일에 1-2시간 1-2년만 공부한다고 그런 체계를 내재화해서 말을 이해하고 발신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궁하면 어차피 번역기를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먼저 번역기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순간적으로 주고받는 형식적인 말이나 응답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즉각 응해야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번역기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둘째 신어, 생략, 토막말, 비논리적인 문장 등은 번역기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기를 쓰려면 신어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생략을 삼가야 하고 논리적인 원문을 만들어서 번역기에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수업 시간 수가 한정되어 기초단계를 마무리할 여유가 없다면 상기한 즉각적인 응답 연습과 번역기의 슬기로운 이용방법을 학습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도 눈 앞의 학습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chat 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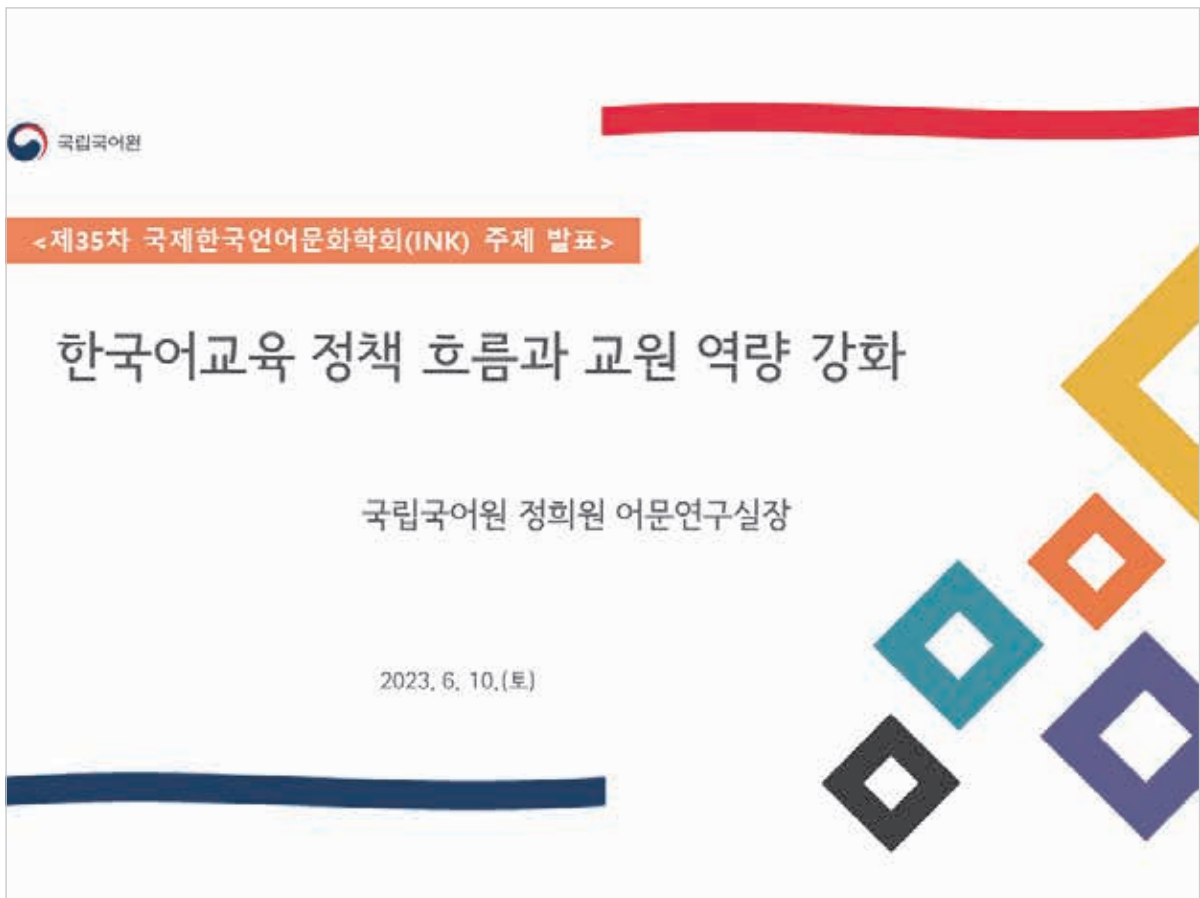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의 방법과 쟁점’이라는 주어진 테마에 맞추어 일본인인 발표자가 직접 관여한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 관한 과거의 성과와 현황 및 과제, 그리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해 보았다. 발표자가 일본 대학과 지자체 등의 시민강좌, 그리고 어학원 등에서만 활동해 오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도 모른다. 특히 재일 한국인 교육 관련 부분은 경험이 없어 논할 수가 없었던 양해를 구한다.

주제 발표 II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과 교원 역량 강화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과 교원 역량 강화

정희원(국립국어원)



차 례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3.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 K-티처 프로그램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1. 머리말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 시작**

→ 국외: 189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대학교 한국어 강좌 개설
 국내: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정부의 한국어교육 지원 배경**

- 1990년대 이후 한국어교육의 양적 성장
- 학습자 구성 다변화(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내국인)
- 국력 신장에 따른 국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국립국어원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1. 머리말

❖ **한국어 교육의 전개 과정**

한국어 교육의 성장과 발전

1990년 전후
한국의 경제 성장 및 재외동포 증가로 학습자 증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 증가

2000년 이후
한류 영향으로 외국인 학습자 증가
 • 리투아니아: 한국인 교민 20여 명, 세종학당 수강생 800여 명


1997 2005 2007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실시 한국어 국외 보급 지원 법제화 「국어기본법」 세종학당 실시

· 한국어교육원자격 제도 시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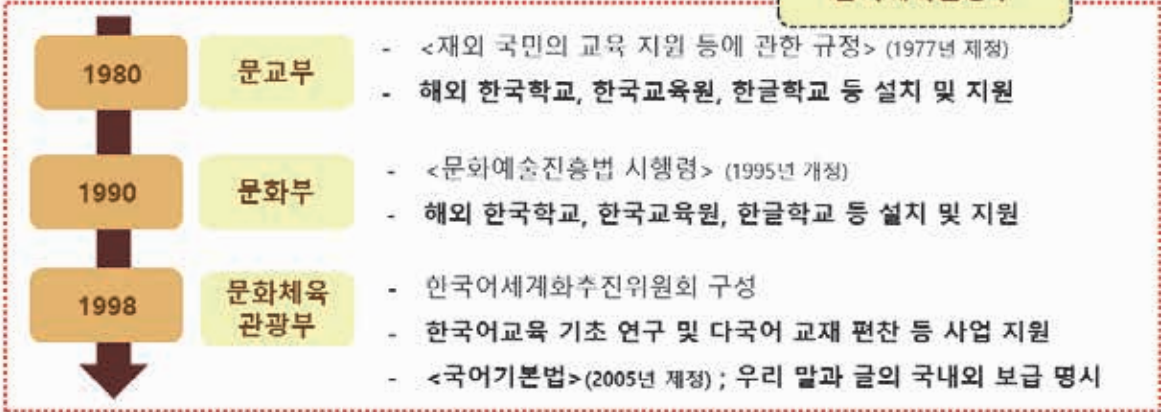
교재 개발 활성화, 교육 이론의 현장 적용 연구 등 다양한 시도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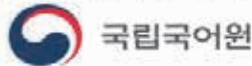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1. 머리말

❖ 한국어교육의 전개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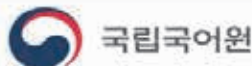


- 외교부** 한국학의 국외 보급 지원, 재외동포 대상 지원 강화
- 교육부** 국내 - 중도 입국 자녀 증가로 인한 KSL 교육 지원 강화
국외 -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채택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에 따른 국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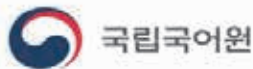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2. 정부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현황

부처	주요 사업 내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국내 이주민 자녀 정규 교육 주무 부서 -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운영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 실시 - 유학생 지원 및 국외 한국학 진흥 사업 - 국가 표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관 - 국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지원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증진 사업과 재외동포 지원 주무 부서 -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국외 한국학(한국어교육) 지원 - 재외동포 사회의 한글학교 지원 - 공적 개발 원조(ODA) 차원의 한국어교육 봉사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 세종학당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기본법(2005)에 따른 한국어 국외 보급 주무 부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재교육 - 타 부서 한국어교육 사업 지원 - 세종학당 운영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2. 정부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현황	
부처	주요 사업 내용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 사회 적응 지원 주무 부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결혼이주민의 입국 전 현지 사전 한국어교육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한국 사회통합 추진 주무 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실시 -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시 한국어 능력 인증 요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진출 외국 인력 관련 정책 주무 부서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 TOPIK) 주관 -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한국어교육 실시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 국외 환경 중심-		
❖ 한국어 사용 현황				
<div style="border: 1px dashed orange;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어 사용 일반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출처: 한국어특산정책(20년 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제1언어 사용 인구: 77.3백만 명(전 세계 14위, 1.004%) ▪ 한국어 제2언어 포함 사용 인구: 79.4백만 명(전 세계 22위) </div>				
한국어 사용 인구 ('18년) (단위: 만 명)	한국어 모국어 사용 규모			한국어 제2언어 포함 규모
	우리나라 국민	재외동포	북한 인구('16년)	총계
	5,171	794	2,577	77,300(세계 14위)
	79,400(세계 22위)			
<p>제2언어 포함 사용 인구 순위(괄호: 제1언어 기준 순위)</p> <p>1위: 영어(3위), 2위: 중국어(1위), 3위: 힌디어(4위), 4위: 스페인어(2위), 5위: 프랑스어(15위) . . .</p> <p>12위: 독일어(17위), 13위: 일본어(8위) . . . 22위: 한국어(14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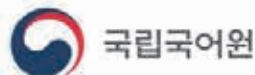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외 환경 중심-

❖ 전 세계 한국어 수요 증가 추세

- **800만명**: 2021년 12월 기준 '듀오링고' 앱 한국어 학습자 수
- '오징어 게임' 방영 후 2주 내 신규 학습자
- **107개국 1,408개 대학**: 국외 한국어·한국학 강좌 수
- 2021년 12월 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 '22년 **82개국, 244개소**: 전 세계 세종학당 수

* 출처: 세종학당재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종학당 지정 (국/개소)	54개국 171개	57개국 172개	60개국 180개	76개국 213개	82개국 234개
세종학당 수강생	56,202명	61,810명	72,713명	76,528명	81,476명
세종학당 파견 교원	119명	125명	140명	159명	2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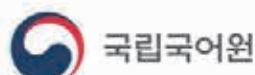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외 환경 중심-

❖ 글로벌 한국학 진흥('21년)

- '21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 보고서

	국가	현지 대학교	한국학 강좌 제공
유럽 지역 한국(어)학 강좌 운영	69개국	264개교	1,250건
유럽 지역 한국(어)학 강좌 운영 지원	교수직 설치 지원 강좌	교원 고용 지원 강좌	객원 교수 파견 강좌
	서유럽 5개국 7개 대학	동유럽 3개국 3개 대학 서유럽 3개국 5개 대학	동유럽 14개국 19개 대학 서유럽 5개국 6개 대학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3. 한국어교육의 환경 변화 -국외 환경 중심-

❖ K-콘텐츠 열풍

⇒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20))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 한국어 학습 수요

-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 ↓

❖ 한국 문화 콘텐츠의 향유 → 한국어 학습으로 견인

-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를 실제 학습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한국어교육 학습자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

- 한국어교육 수요 시장: 학문적 목적 ↔ 취미 수준으로 다양한 층위, 전방위적으로 확대



국립국어원

1. 한국어교육 정책 흐름

1.4. 국가 중심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시기별 흐름

❖ 현재 국내 한국어교육 정책

- 법과 제도로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국가 개입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현행 법률상 한국어교육 정책의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법률 제16589호)·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기반한

국어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같은 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조항 신설, 한국어교육 정책 관련 내용 법률 명시

❖ (2006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실시

❖ (2007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국어정책과

- (국외) 세종학당 개설, 한국어 교육과정·교재를 개발/ (국내) 한국어 교원과 학습자 연수 실시 확대

❖ (2011년) 세종학당재단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외 한국어 보급과 교육 확산 업무를 전담 실행



국립국어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이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10년~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 교육부: 2012년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등급화를 제시
- 교육과정 수립과 교재 개발의 참조 기준을 제시

❖ (요구 분석) 교육 환경, 교육 대상, 다양한 학습 목적 적용·변용 기준 필요

-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양한 학습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 필요
-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편의를 제공 vs.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
-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도 필요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2020.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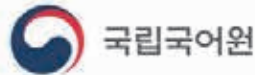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11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발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 특정 지역·학습자를 한정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 제시
- 포괄적인 성격과 목표의 설정
-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
- 구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 평가의 방향성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지향점

- 교육 환경 특수성에 부합하는 상세한 개별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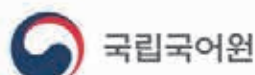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 국립국어원 교재 개발

- 교육 현장과 관계 부처의 수요 파악 → 학습 대상에 따른 교육 과정과 전문가 의견 청취
→ 교재 개발 → 출판 작업 → 현장 교재 보급 → 만족도 조사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반 체계적 교재 개발
- 국내외 학습자 대상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세종학당 학습자, 재외 동포 유아, 다문화 가정 성인 및 자녀, 이주민

❖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개선」(국무회의 보고, '16.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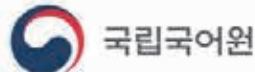
- 부처 간 업무 조정예 따라 교재 개발 업무는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부처 간 중복 교재를 개발 방지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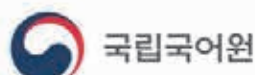
- ❖ **교재 개발: 부처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습자 대상**
- ❖ (2000년대~)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 이주 노동자 등 국내 이주민 급증
 - 이주민 언어 능력과 환경에 걸맞은 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름.
- ❖ (2008년~) 국내 이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교재 개발 착수
- ❖ (2009년~2012년) 교재 개발, 출판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개발
 -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1~2)> 개발
- ❖ (2009년~2013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정책 과제 대두
 -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배우기(1단계~3단계)' 교육 자료 개발, 출판
- ❖ (2012년~2014년)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국내 학령기 학생 교육
 - <표준 한국어(1~2)> 개발, 출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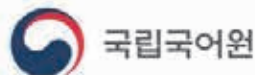
- ❖ **교재 개정: 개정된 교육 과정 내용 반영, 교재 내용과 자료 시의성 확보**
- ❖ (2017년~2019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초급1~중급2)> 출판
 - 다문화 가정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전면 개정
- ❖ (2018년~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초급, 중급)> 출판
 -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기본 교재 개정 작업
 - 2018년 기초 연구, 2019년~2020년 개발
 - 2020년 12월 본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등 출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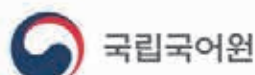
- ❖ (2017년~2020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학습 도구) 출판
 - 교육부 「한국어 교육 과정」 2017년 개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 (2017년) 기초 연구
(2018년~2019년) 본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총 51권을 개발
(2020년) 출판 작업
 -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의사소통 한국어'
 - 교과 적용 및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학습 도구 한국어'
 - 교육부 교재 보급 담당, 중앙다문화센터 KSL 활용 콘텐츠 제작·보급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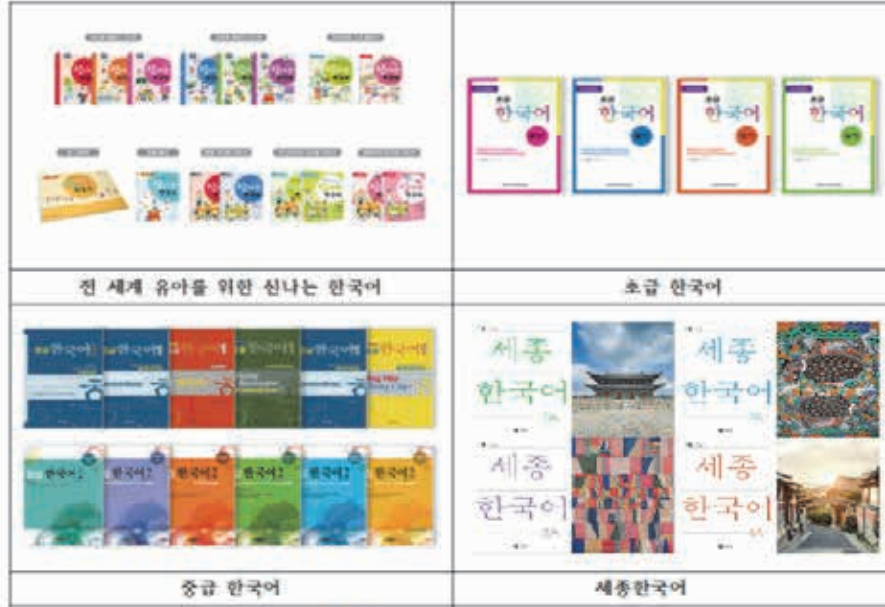
- ❖ (2017년~2019년) <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Fun Korean)> 출판
 - 재외 동포 유아(만 3~6세)의 이중 언어 능력과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 '유아용 활동지', '한글 놀이', '큰 그림책', '교사용 지도서' 구성
 - 유아 인지적 발달 단계 고려
 - 일상생활부터 한국 문화, 총 18개 주제
 - 학교에서 배운 내용 가정에서도 연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 포함
 - 언어권별(러시아어·일본어) 교재 개발, 2020년에 출판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국립국어원 개발 국내외 한국어 교재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세종한국어>

- ❖ '11년~'13년 초판 개발 및 출판 / '19년 증보판 출판
- ❖ 기존 교재*의 개정 주기 도래(7~8년)로
- ❖ 교육 내용 및 삽화·디자인 등에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추진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연도
개편 필요 기초 연구	- 2018 세종학당 교육과정 운영 재검토 * 세종학당재단/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정희 교수) * 세종학당 표준 교재 정비 사업 * 국립국어원/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김정숙 교수) **수행 기간: 2018. 11. 15. ~ 12. 28.(약 1.5개월)	2018
교재 수렴·공보	- 증보판 <세종한국어> 발행 *국립국어원(이리태,김민교,신학림,박영희,김영희,김영희출판사)	2019
교재 전면 개정 기초 연구	-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정 기초 연구 * 국립국어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정희 교수) - 기개발 교재 사용 의견 및 요구 조사 - 교재 내외적 구조 및 내용 연구	2019
1단계 개발 집필	-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발 연구(2020~2021) 착수 * 국립국어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정희 교수) -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재 체계 확정 * 세종학당 기본 교재 편집 제작(2020~2022) 착수 * 국립국어원/공연백주식회사 - 주 교재(기본 교재, 대하기 활동) 개발·편집 * 현장 시범 적용, 수요자 요구 반영 등 계속	2020
2단계 집필 편집	-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발 연구(2020~2021) 완료 * 세종학당 기본 교재 편집 제작(2020~2022) 계속 - 주 교재 보완 및 보조 자료 개발·편집 * 현장 시범 적용, 수요자 요구 반영 등 계속	2021
3단계 제작	- 세종학당 기본 교재 편집 제작(2020~2022) 계속 - 출판을 위한 편집·제작, 내용 수정·보완 * 교재 개발팀 지원 계속	2022 (9월 1일 출판 예정)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세종한국어>

❖ (개정) <세종한국어> 2022. 9. 1. 발행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2.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세종한국어>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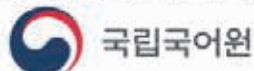
2.3.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 한국어 수업 현장의 유형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다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 교원 양성 목적
-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 기회 제공
- 최신 한국어교육 동향 이해 및 전문적인 교육 방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 마련

연수 사업명	연수 대상	연수 목적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다문화, 법무부, 교육부, 대학 교원 등 주관 부처별 한국어 교원	국내 교원 보수 교육
국외 한국어 연구자(외국인) 배움이음터	외국 국적의 한국어 교원 (예비 교원 포함)	국외 한국어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초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연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원	해당 학술대회 회원 및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차원의 연수 제공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온라인연수회	학술대회 개최 지역 현지 교원 대상 *23년의 경우 유럽 현지 교원 대상으로 진행 예정	

*배움이음터란 배움을 가르침으로 다시 이어가는 교육의 덕전을 의미하는 국립국어원 주최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회 공식 명칭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3.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 다문화 관련 부처 소속 한국어 교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향상
- 한국어 교원 대상 재교육을 통해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양적, 질적 성장
- 혼합형(집합 연수, 실시간 화상 연수 동시 진행) 연수 운영을 통해 수강 기회 확대
- 대학언어교육원, 법무부/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원 대상 연수 개최('23년 7~8월 예정)



[사진] 2022년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현장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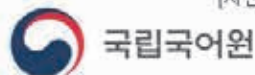
2.3.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

❖ 국외 한국어교원(외국인) 대상 연수 '국외 한국어 연구자(외국인) 배움이음터'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자생력 강화에 초점
- 최신 한국어교육 동향 및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을 알리고 각국의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 국외 거주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약 5주간 대면 연수 개최
 -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한시적 온라인 연수/ 온,오프라인 동시 연수 병행하여 진행



[사진] 2022년 국외 한국어 연구자(외국인) 배움이음터 현장



2.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정책 사업 소개

2.3.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 연수

❖ 국립국어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연수회

- 국내외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와의 업무 협약 체결 및 대면 연수 개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원을 대상, 매년 집중연수회 주관
- 현지 교원 맞춤형 재교육 연수 기회 제공 및 현지 교원과의 네트워크망 구축

❖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온라인 연수회

- 국내외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한국언어학회(ICKL)와 공동 온라인 연수회 개최
-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개최지에 따라 학회 회원 및 현지 교원 대상 재교육 기회 제공
- 현지 교원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강의 제작 및 연수 제공



[사진] 2022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집중연수회 강의 영상

3.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 국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변화

⇒ 한국문화 경쟁력 강화와 한국어 위상 상승으로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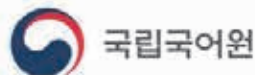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합격자
: ('97년)2,692명/711명 > ('18년)329,224명/185,624명
- 해외 한국어,한국학 강좌 운영 대학 및 연구소
: ('07년)55개국 632개 > ('17년)105개국 1,348개
-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격상('20년)
- <헝가리, 캄보디아, 오르단 등>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21년)
- <태국> 대학입학시험에서 학생 3,770명이 한국어를 선택('22년)
- ▶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어교육은 양적 성장을 달성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 국외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비해 현지 교원은 여전히 부족

- 주요 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부족
- 현행 국어기본법상 국가자격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국외 취득은 어려운 상황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중 외국 국적자의 비율: 4.5%(전체 70,708명 중 3,207명)
- 현지 문화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높은 교원에 대한 수요 증가
: <베트남,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한국어 학원들의 교육 품질 개선 필요>(한국일보, '21. 3. 25.)
: <한국어 교육기관은 많은데 베트남인 교사가 많이 부족>(경향신문, '22. 11. 23.)

- ▶ 국외 한국어교육 다층적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와 전략적인 대응 필요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한국일보

짜오! 베트남

"선생님이 없어요"... 베트남 한국어 교원 양성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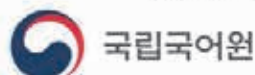
일자: 2021-03-26 06:00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숭숭장구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요소도 여전히 많다.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한국어 교원 양성은 기본이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한국어 사설학원들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숙제다.

(중략)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어로 가르칠 선생님들을 다수 확보하는 일이다. 몇몇만 한국교육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7명의 한국어 전문 교원을 양성했지만 기존 수요의 맞추기에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의 경우 베트남에 전체의 7%에 해당하는 15개 학당이 있으나, 학생 규모는 1만2,000여명으로 17%를 차지한다. 당 연히 교원 일인당 학생 수도 세일 많다.

『한국일보』, 2021년 3월 25일 기사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2. K-티처 프로그램 추진 배경

‘고급’ 한국어는 가르칠 교사가 없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교사 대부분
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교재 보급 필요

K-티처의 선행적인 연구와 교육인력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급 이상의 단계에선 가르칠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재의 소실·미보급이 발생할 뿐 아니라, 유능한 교재를 보급할 수 없게 돼 교육 질도 높은 어종이 보급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급 학제 등에 따르면, 중급 이상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풀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총장대학교 언어문화정책 교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하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 4급 이상으로 가면 교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총 4급인 1, 2급과 영·상급급인 3, 4급으로 나뉜다. 중급 단계는 중·고급 단계가 원거로 구성돼 있고, 고급 단계는 한국어 원거,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테스트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고급 단계는 언어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문화적인 부분까지 이해해야 한다 보니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적다.

윤 교수는 또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국어 원거가 추가됐으나 전문적인 원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원거는 원거를 위한 교재, 교육 시스템 내재적인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교육부는 원거에서 한국어를 배울 20만여 명이 넘는 학생을 위해 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원거 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재와 교

재 보급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한글 교사 양성에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원거 내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지는 않다. 원거는 원거를 위한 교재와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원거 양성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 자격을 갖는 것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총 3년제로 내리자 했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또는 영·미·프랑스어 원거 과정을 이수한 후에 교원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가능하다.

김지철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교육부에서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외국인 한글 교사를 양성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경 고려대학교 언어문화학과 교수는 “교원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어는 언어이고 한글은 문자”라면서 “한글을 읽고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어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배운 것과 같이 외국인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통해 한국어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됐다”며 “이러한 언어로서 한국어 교사의 부족을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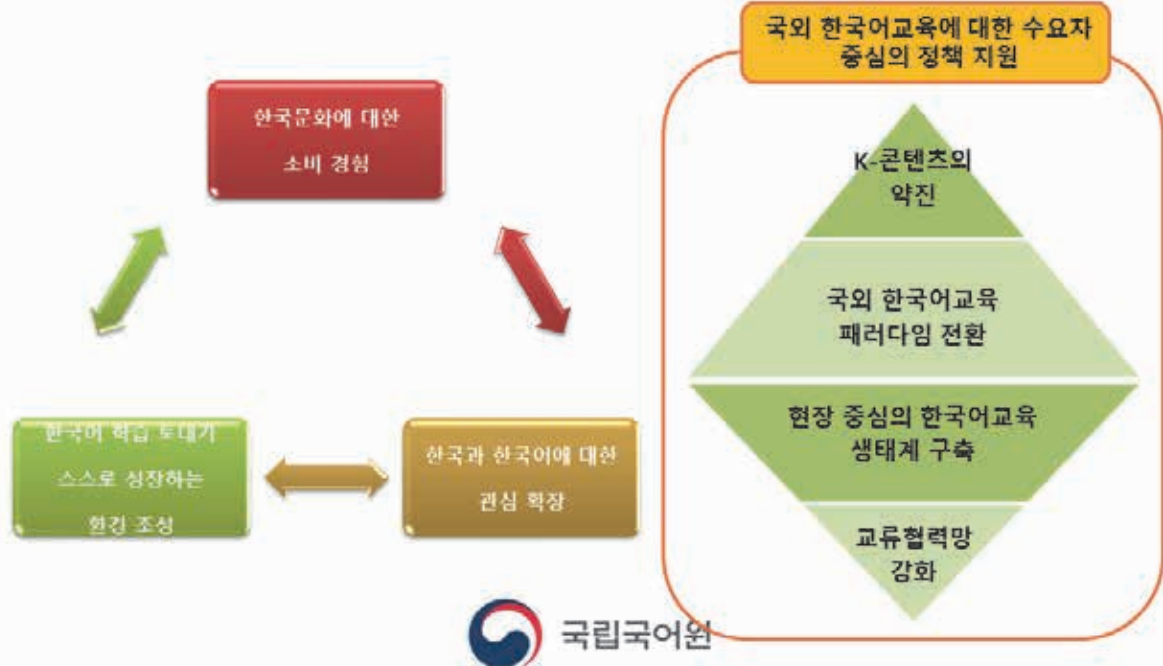
교사 양성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함께 한국어 교사들의 자립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원거에서 자격증과 2년 동안 한글 교사로 일한 이력(2023년 기준)을 가진 두 명의 출근을 2명의 수입을 얻는데, 단순 일용직 시간외근로만 받았다”며 해외 교사들이 자립 지원과 교육 부문을 지적했다.

김 교수 역시 “교사 채용 제도도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민을 되어야 할 문제”라며 “차세대 교육 인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수입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럴드경제』, 2023년 4월 6일 기사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3. K-티처 프로그램 기대 효과

❖ 국외 한국어교육의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의 확장 and 전환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3. K-티처 프로그램 기대 효과

- ❖ 국외에서 현지인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 양질의 국외 한국어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3. K-티처 프로그램 기대 효과

- ❖ 한국어 '학습자'가 '선생님'이 되어 국외 한국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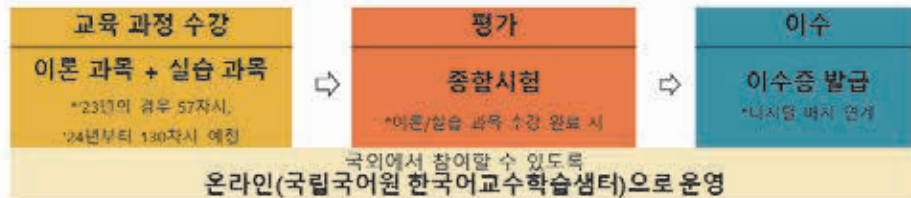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4. K-티처 프로그램의 내용

❖ K-티처 프로그램 개요

- 국외 활동 한국어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한국어교육 전문성 제고
- 국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하여 국외 한국어 상황에 맞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과정 이수자에게는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 [대상] (23년)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을 수강한 전·현직 한글학교 교사(한시운영)
(24년 이후) '국외 대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인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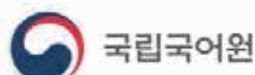
※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과는 연계되지 않는 별개의 교육 프로그램임.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4. K-티처 프로그램의 내용

❖ <K티처 프로그램>과 <한국어교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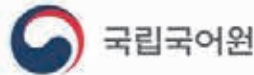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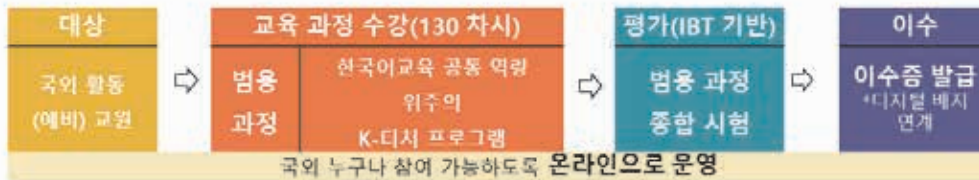
	K-티처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자격 기준)
목적	국외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재교육 수요에 대응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 부여
법적 근거	해당 없음	국어기본법
결과 (발급 주체)	K-티처 프로그램 이수증 (국립국어원장)	한국어교원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용	무료	과정 이수를 위한 수강료
과정 구성	√ (비용 과정) 총 130차시 : 이론 과목 (100차시) + 실습 과목(30차시) √ 교육 대상에 맞게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모듈형 콘텐츠 구성 가능	√ (국어기본법 시행령 근거) 총 120시간 : 이론 과목(100시간)+실습과목(20시간)
평가	온라인 평가(종합시험) 응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 어디서나 가능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필요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5. K-티처 프로그램 향후 계획

❖ 2024년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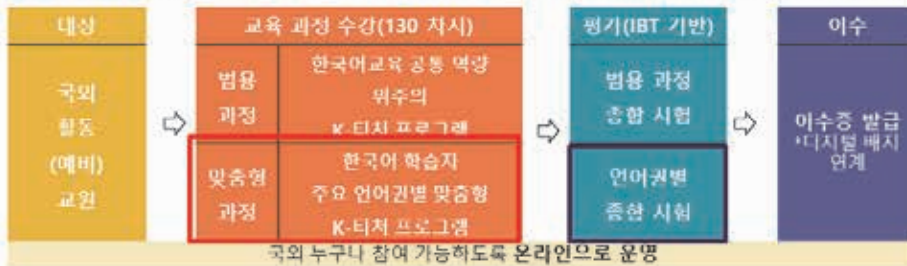
- [대상] ('23년) 한글학교 교사 과정 종료
 ⇒ ('24년) 범용 과정 시작, 국외 활동 (예비) 교원으로 대상 변화
- [교육 과정 및 평가]
 - 온라인 콘텐츠 83차시 추가 개발('23년), 완성된 130차시 과정으로 운영
 - 범용 과정에 맞는 종합시험 개발('23년)하여 적용
- [운영 및 홍보]
 - 국외 소재 한국(어)학과 및 관련 교육 기관, 관련 학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협력 관계 도모 방안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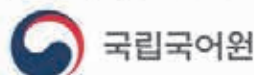
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3.5. K-티처 프로그램 향후 계획

❖ 2024년 이후 계획

- [특징] 현지 특성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 콘텐츠 과정 개발 및 운영
 - * 범용 과정 + 언어권별 맞춤형(언어·지역 등 학습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
-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자질 향상 지원
 ⇒ 한국어 고급 학습자 양성을 통한 한국어 교원의 확대
- 요구 조사, 현장 분석 등을 통해 교육 내용 도출, 현지 특성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발



* (예비 교원): 국외 대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자



고맙습니다.



주제 토론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좌장 : 조수진(서강대학교)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제언 -

문희진(일본한국어교육학회)

주제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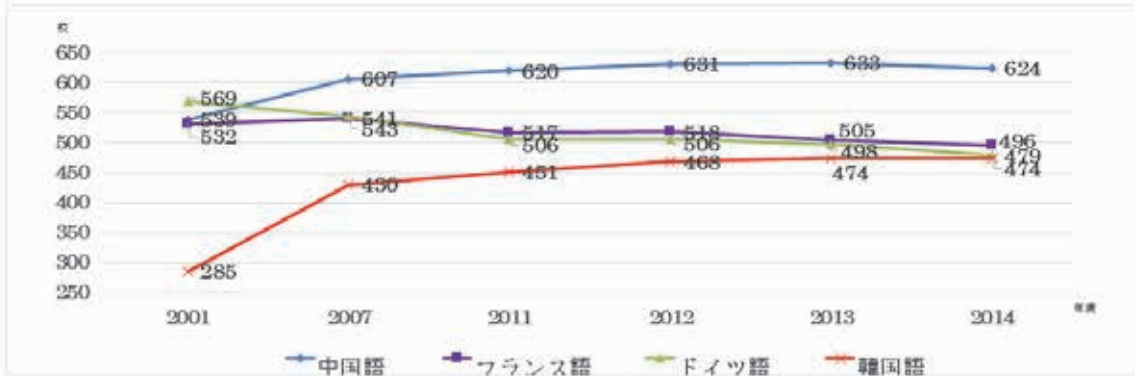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제언 -

문희진(일본한국어교육학회)

1.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1) 일본 대학의 제2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 학습대상은 일본인 대학생

* 한류붐에 의한 2007년까지 일본내 한국어 강좌 급증 및 교원 채용 증가

*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2) 일본 대학내 한국어교원 채용에 관해서

- ① 2007년까지 한국어 강좌의 증가 추세로 인해 다수의 한국어 교원이 이미 채용된 상태
- ② 채용 조건으로 학위와 연구 실적이 가장 중요
즉,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성 낮음
- ③ 한국어 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지도의 필요성

2) 일본 대학내 한국어교원 채용에 관해서

④최근 한국어교원 채용시, 이력서에 한국어 자격 유무 항목 추가

(예)立教大学

릿쿄대학교(2019년)

일본대학의 인식 변화→외국에서의 교육및 연구 경력도 중요시 함

V 学 歴 (立教大学 履歴書記載要領)

1. 高等学校卒業から記載してください。なお、大学院博士課程に在学した場合は、

①修了、②単位取得退学、③中途退学の種別と年月日を記載してください。

2. 教育機関等で当該言語教育の教員養成講座等を受講している場合は機関名、講座名、受講期間を記載してください(日本国内外を問いません)。
また、修了証を所持している場合はコピーを提出してください。

...

VII 職 歴

4. 当該職歴のうち海外における教育活動・研究活動の期間がある場合は、

必ずその期間および活動内容について記載するとともに、「海外での教育研究歴」欄に「○」印をご記入ください。

⑤한국에서 직접 채용 및 한국 대학에서 파견 사례 증가

3) 일본 대학의 교원 채용의 변화 추세

①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 증가(외국인)

2019년 교원 자격증 취득자 -총44,976명 중 외국인 2072명(37개국)

국가	소지자 수(명)	전체 대비 비율(%)
중국	1,592	76.83
일본	157	7.58
미국	89	4.30
캐나다	38	1.83
베트남	22	1.06

↳금후 교원 채용에 있어서 교원 자격 취득자와의 경쟁이 심화

4) 일본내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법

- ① 「국내외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에서 교육경력 인정
일본 대학 36, 초중고등학교 16, 한국학교 4, 한국교육원 4,
세종학당 1 ⇒ 총61개 기관(2019년8월)
- ② 2020년이후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에 대한 개정
⇒ 한국에서 집합교육 및 참관, 실습
→ 이러한 정보가 일본대학 한국어 교원에게도 인지도 낮음
(한국어 교원 자격 미소지자)
⇒ 교원 자격 취득 정보 제공이 필요
단, 시간적, 재정적 부담 절감의 필요성

2. 교원 교육 강화를 위한 제언

- 1) 교원 자격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의 이해
- 2) K Teacher 제도의 홍보와 지원
- 3) 일본 현지에 적합한 교육내용 프래그램의 정비
 - ▣ 한일간 교육자의 정기적 워크숍의 필요성과 인적 지원
- 4)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교육 과목의 도입에 따른 교사
자질 향상
- 5) 일본내 학회와 연결한 홍보 및 교육실시

<참고 문헌>

- 오문경 · 이경수 · 문희진(2020)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68집p35-p53
- 文嬉眞 · 金美淑 (2018) 「日本の大学における第2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位相と現状—愛知学院大学の必修科目を事例として—」 『日本韓国語教育』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일본 한글학교 유아 및 초등 교사 필요 역량을 중심으로-

이은숙(재일본한글학교 관서협의회)

20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일본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주제 토론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일본 한글학교 유아 및 초등 교사 필요 역량을 중심으로-

이은숙
재일본한글학교 관서협의회

한국어를 잘 못하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은 이유는?

- 올드커머 (old comer)는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음
 - 유학, 국제결혼, 취업 등 뉴커머(new comer)의 증가로 자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대두
 -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녀들 증가
 - 일본 학교에 입학 (일본동화교육)
 - 유아, 초등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 부족
 - 학부모와 교사가 계승어교육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 기회가 없어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
 - 한국 이름을 숨기고 싶어함 (한국인 부모 자녀)
 - 일본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국제결혼가정 자녀)
-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상실, 일본인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

한글학교의 유아 및 학령기 아동 교육

- 관서지역 한글학교 유아 및 학령기 대상 교육
 - 47개 학교 중 10개교 미만 – 홍보 및 계승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와 이해가 부족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
 -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부족
 - 교과과정이 한국어 수업에 치중, 한국 문화 수업은 소수 학교에서만 실시
 - 한 학급에 수준 및 연령별로 다양한 학습자가 존재
 - 교육 전문가 부재로 인한 교육 방식에 대한 비표준화
- 유아 및 학령기 아동 교육의 중요성
 - 가정과 한국과의 유대관계 형성 시기
 -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 의욕이 저하됨

계승어교육의 이해

- 계승어교육의 의의
 -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
 - 정체성 형성 (민족정체성 → 세계 모범시민으로 육성)
 - 가족과의 소통을 유지
 - 제2언어학습의 용이성, 학습언어능력이 형성
 - 사회적 자원, 개인적 자산이 됨
 - 자녀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계승어교육의 선택은 부모 → 학부모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에게 올바른 정체성교육의 방향을 교사(한글학교)가 제공

한글학교 교사 필요 역량

-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
 - 한국어교수 능력 (연령별 및 수준별 학습자 교육 지도 능력)
 - 계승어교육의 안내자(도우미) 및 선구자의 역할
 - 거주국(일본)의 이주 역사 및 한일관계 지식이 요구됨
 - 가정(부모)과의 연계 역할

- 한국어교육을 넘어 가정을 통한 계승어교육 및 정체성교육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

한글학교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 **현 지원 교육 프로그램**
 - 한글학교 교사 인증 과정
 - 한국 초청 교사 연수
 -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연수 (학교별 자체 교사 연수)
 -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교원(K-teacher)인증' 프로그램
 - 교수법에 집중
 - 유아 대상 교재 부족, 유아 및 학령기 아동 대상 교육심리학 프로그램 미흡
 - 계승어교육 및 정체성교육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부족
 - 표준화된 교육 평가 방법이 활용되지 않고 있음(일본)

↓
- **이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설 필요**
 -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유지 및 발달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 필요

일본 중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및 한글학교의 현황

서명환(재일본한글학교관동지역협의회)

1. 머리말

2000년대 이후부터 한일양국간의 교류를 시작으로, 오늘날 일본에서는 BTS, 트와이스등의 K-POP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 영화, 메이크업,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여 2023년 1분기 일본의 해외 여행자 수 1위는 바로 한국이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181만여명인데, 그 중 약 36만여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방문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한국의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류가 확산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요구와 함께,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2017년부터 연간 3회 실시로 시험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증가하면서 2022년 기준 연간 응시자 수는 4만명¹⁾이 넘었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대학진학 및 어학유학의 일본인 유학생 수는 5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일본의 교육기관인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 증가, 일반 사설학원을 포함하여,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등의 재외교육기관을 통한 한국어 보급을 통하여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학습자들의 높은 학습욕구와 학습에 대한 다양한 니즈 또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본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일본내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 층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한국어 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몇몇 있으나, 朝鮮語教育学会 韓国語教育実情調査分科会(2021:5)의 보고서의 의하면 일본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아래는 일본 중등교육 기관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한 내용이다.

1) 韓国教育財団, <https://www.kref.or.jp/examination>

	학교수	한국어교육실시학교수	비율
고등전문학교	57교	13교	22.8%
고등학교	4874교	286교	5.9%
중학교	55교	3교	5.5%
	4986교	302교	

表1 国内の全学校と韓国語教育実施学校数²⁾

중등교육기관 중 고등학교가 가장 많고 학교 수는 4874개교이며, 그 다음으로 고등전문학교 57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55개교로 많았다. 비율로는 고등전문학교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5.9%, 그리고 중학교 5.5%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고등전문학교는 일반교육이 이루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기술등의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산업관련의 취업등의 다양한 교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 숫자로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5.9%에 그치기에 아직까지도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은 많이 적은 편이다.

전국 중학교의 수는 약 1만여의 학교가 있으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 학교 수 또한 매우 적으며, 한국어수업 또한 3개교뿐이었다. 이는 중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유학박람회등 중학생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중 고등학교가 아닌, 사립학원이나, 재외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한국어 교육실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과 일반 사회인 학습자에 비하면 중등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환경은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고등학교의 외국어수업의 약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일본 중고등교원 면허증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 또한 사립학교가 많다. 국공립학교에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도도후현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를 통해 특별면허 혹은 임시면허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특별면허와 임시면허 또한 제한사항이 많으며 발급에도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기에 그 수가 많지 않다. 일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은 교사 면허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본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3. 일본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정부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³⁾)」에 의하면,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재외교육기관은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재외교육기관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학당을 포함하면 모두 4가지로 볼 수 있다.

2)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実情調査最終報告書」、朝鮮語教育学会韓国語教育実情調査分科(2021.12)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 제2조1항「“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한글학교	세종학당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국가수	116개국	84개국	16개국	41개국
학교수	1468개교	244개소	34개교	15개(일본)
학생수	83,662명	76,528명	2,252명	61,859명
교원수	3,151명	-	188명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2021)〉⁴⁾

세계 한글학교 수는 116개국의 1468개교, 학생 수는 재외동포 약8만6천명, 외국인 약1만5천명으로 약 10만명이며, 교원 수는 약1만5천명이다. 세종학당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4개국의 244개소이지만 국가 수로는 한글학교가 32개가 더 많고, 기관수로는 1224개나 더 많다. 제도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적 분포나 학교 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의 수를 비교하면 현재 재외동포교육기관 중에서 한글학교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종학당을 제외한 재외교육기관 중 주일한국교육원은 일본에 15개원이 있으며, 한국교육원은 일본의 한국어보급사업 및 한글학교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전국의 관내 한글학교 수는 약138개교이며, 학생수는 약6천명이다. 한국학교는 일본에 4개교가 있으며, 민족학급을 포함하면 5개교가 있다. 민족학급을 제외한 한국학교의 교원 수는 188명, 학생 수는 2252명이 있다. 그 중 중고등부는 1230명이다. (중등부 528명, 고등부 702명) 한글학교의 학교 수는 약138개교이며, 학생 수는 약3000명, 교원 수는 약500명 정도이다.(2019년기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큰 한글학교의 경우, 코로나등의 영향으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장소의 문제, 교사부족등의 이유로 임시폐교를 하거나, 휴교를 하여 그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글학교는 3세부터 80세라는 말이 있다. 한글학교는 국적 뿐만 아니라 연령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한글학교에서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유아, 초등부와 성인 학습자에 비해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토요일에도 수업이나 부활동이 많으며, 외국어교육은 대부분 영어에 치중되어 있고, 고등학교 및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게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에는 한국어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 국적의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등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외면시 하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글학교와 교육현장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외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글학교의 수업 커리큘럼이나 교재개발은 초등부 대상의 교재가 대부분이기에 상급반으로 진학 할수록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수업의 교재는 대부분 일본 현지의 한국어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교사들에 대한 지원방향

한글학교는 재정의 어려움과 함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교의 집중화현상으로 인한 경쟁력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2021)

상실,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각 한글학교는 열악한 상황속에서 교장과 교사들은 고군분투하며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사들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교사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개발이다. 교사의 전문성 부족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주요인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 1단계, 2단계를 통한 교사의 역량강화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한글학교협회의 관점에서 일본지역의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일본 중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와 문체부가 일본의 문부성 및 교육위원회와의 상호 협력 체결을 맺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교육기관에서의 정식 면허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교사는 대부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교육기관의 교원 면허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번째, 한글학교의 측면에서 보면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 1,2단계의 상위버전인 국립국어원의 K-터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현지에서도 한국어교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 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어교원들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한글학교 모국방문 교사연수회를 시간적, 거리적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을 위해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 양면으로 지원해야 하고, 현지 교사연수회를 보다 확대하여,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본 현지의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문성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맞춤형 사업등의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사연수회를 학술대회로 발전시켜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술 및 연구 교류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학교와 교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재의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역량강화 및 한글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일부 학습자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각 학습자층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를 교사가 현장에서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한글학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5. 맺음말

한글(한국)학교는 재외교육기관이다. 재외교육기관으로써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육의 핵심은 바로 한국어 교육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약 82만명의 재외국민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외국인 국적자는 무려 약60% 가까이 된다. 국적을 초월하여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가 일본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글(한국)학교와 교사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재일동포들이 한글과 민족 교육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자생적인 한글교육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뉴커머들과 함께 일본사회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거주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이러한 차세대 동포들의 미래교육은 바로 한국어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학교와 교사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적인 교육 지원의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 정부 기관의 해외 한국어 교원 지원 정책과 향후 지원 방안 -

육효창(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INK 제 35차 준계국제학술대회

주제 토론

해외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위한 제언

- 정부 기관의 해외 한국어 교원 지원 정책과 향후 지원 방안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장/ 육효창

국어기본법 신규제정(2005.01.27.), 일부개정(2022.01.18.)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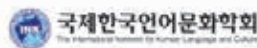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부 부처별 해외 한국어교육 정책 대상 및 관련 법령 (2013년 기준)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정책 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 취학 아동 재외동포	재외동포 외국인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	교육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재외국민의 교육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정책 및 교육 기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전국 초·중·고등학교 KSL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학생 대안학교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교 육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글학교

※외교통상부(1998.2.28~2013.3.23)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됨



정부 부처별 해외 한국어교육 정책 대상 및 관련 법령 (2023년 기준)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정책 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 취학 아동 재외동포	재외동포 외국인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정책 및 교육 기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 - 외국인 대상 세종학당 운영 국립국어원 - 외국인용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한국어교원의 검정 및 자격 부여 및 재교육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 관련 학술연구 등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대상 한글학교 운영 한국국제협력단 - ODA 사업 일환으로 파견된 해외봉사 단이 한국어교육 한국국제교류재단 -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대 상 한국어(한국어) 진흥(정규교육과정)

※재외동포재단은 6월 5일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어 발족함으로써 관련 법령 바뀜



정부 부처별 교육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국민	재외동포 현지 정규학교 학생	재외동포 청소년
재외동포	재외동포 자녀	현지 대학생
외국인	해외 일시 체류민	외국인

※해외 한국어교육,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중점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어 교사 연수 교육

-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국어 교사 연수
 - 대면(오프라인) 교육 진행
-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어 교사 연수
 - 비대면(온라인) 교육 진행
 - 2021 재외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 1차와 2차로 나뉘어 440명 참가+청강생 190명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능률협회, 콘소시엄 맞춤형 동영상 강의 및 실시간 줌화상 강의 효율적 병행
 - 2022 재외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 1차와 2차로 나뉘어 450명 참가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상지대학교, 한국능률협회, 콘소시엄 맞춤형 동영상 강의 및 실시간 줌화상 강의 효율적 병행

온라인 연수 홈페이지 접속

• URL : hangul2021.korean.net



나의 강의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코스워크

동영상 방식과 실시간 방식을 혼합한 **블렌디드러닝 방식**으로 운영

 <p>온라인 동영상 수업</p>	 <p>실시간 원격 수업</p>
<p>녹화 동영상 수업: 총 35차시</p> <p>개별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자율 학습</p>	<p>실시간 수업: 총 12시간</p> <p>기간: 4박 5일</p>

한국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과정의 전체 수업 구성

<p>9개의 교육 영역별로 총 35차시(차시당 30분)</p> <p>포괄적, 원리 중심의 수업</p>	<p>4개의 교육 영역별로 총 8시간 강의도 구성함</p> <p>기초강연 2시간 별도 편성</p> <p>사례 기반의 실제 활동 중심 수업</p>
<p>온라인 동영상 강의(총 35차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및 한국어학 • 한국 문화와 한국어사 • 한류 콘텐츠 • 아동 및 청소년 발달 이해 • 해외동포와 정책상 이해 • 한국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한국어 교육자료 이해 및 활용 • 한국어 교수 방법 및 활동 • 한국학교 수업 운영 방안 	<p>온라인 실시간 원격 강의(총 1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강연] 해외동포 상황과 함께하는 해외동포 이야기 • 한국어 교수 방법 및 활동 • 한국학교 수업 운영 방안 • 온라인 수업 기획 및 운영 • 한국문화 체험 • 기타: 재회식/폐회식, 오리엔테이션, 환영사화 축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어 교사 연수 교육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어 교사 연수

- 대면(오프라인)과 비대면(온라인) 혼합 교육 대세
- 학습자(수요자) 요구 세분화 및 다양화
-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효율성 인정 (공급자 및 학습자/수요자)
-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필요성과 대면(오프라인) 교육의 중요성

동시 인식

향후 정부의 해외 한국어 교사 연수 지원 방안

❖ 공통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 대면(오프라인)과 비대면(온라인)의 적절한 혼합 교육 필요
 - 공급자의 편의성을 추구한 비대면 교육 위주가 아닌 적절한 대면 교육을 혼합한 학습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학습자 사전 조사 활용)
- 대면 교육 : 초청 연수, 현지 연수 등에 적절히 활용
- 비대면 교육 : 맞춤형 동영상 강의 + 실시간 줌화상 강의 효율적 병행
- 정부 공동 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 구축된 민간기업 플랫폼도 활용 가능)

❖ 6월 5일 발족한 재외동포청에 바람

- 재외동포재단이 26년 동안 펼쳐온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계승 및 확대
- 750만 재외동포의 뿌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역할 제고
- 2009년부터 운영해온 재외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과정 사업 지속
- 2019년부터 시작한 한글학교 교사의 사이버대 한국어교육학과 진학을 통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지원 장학 사업 지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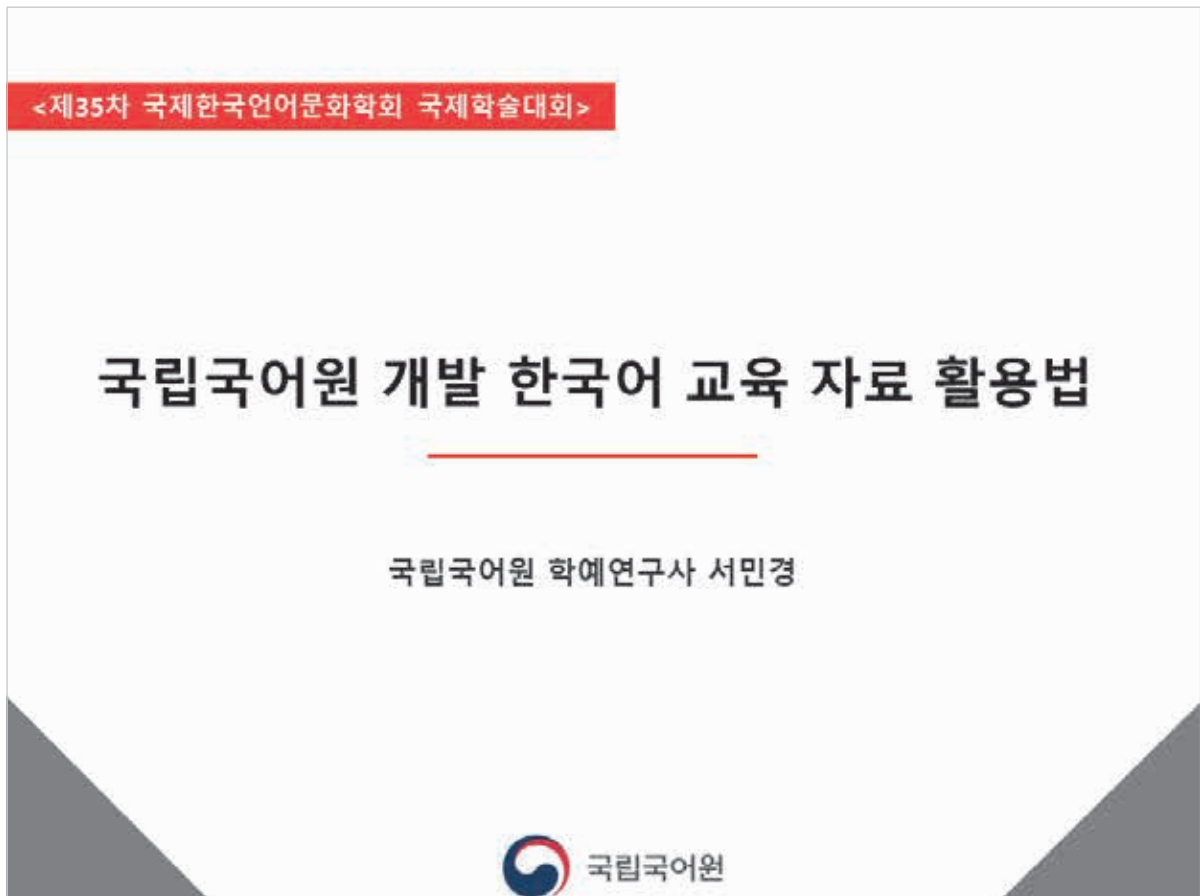
기획 분과

해외 한국어교사 교육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회 : 오지혜(세명대학교)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서민경(국립국어원)



목 차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1) 책자형 교육 자료
 - (2) 멀티미디어형 교육 자료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 (1)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2) 한국어 학습자 맞춤형 나눔터
 - (3)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국립국어원 소개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론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론 강화함으로써 국민 언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를 위하여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

- 언어 실태 및 통계 조사 수행
- 국내외 언어 정책 분석 및 사례 조사 연구
-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사용 환경 개선

- 공공언어 개선
-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생활용어상징실 운영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 국가적 규모의 언어 자원 수집, 정리 및 관리
- 국가 언어 지원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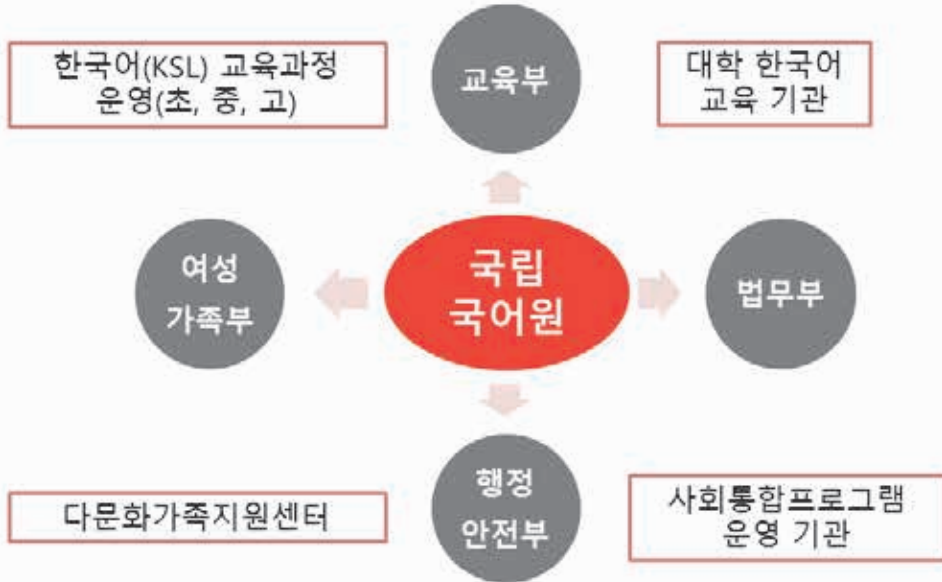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한국어 표준 모형 등 기초 자료 구축
- 한국어 교원 자질 향상, 지원 강화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보급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기관 유형 및 관계 부처(국내)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기관 유형 및 관계 부처(국외)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주요 역할	어문정책 주무부처로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 지원	재외국민의 평생 교육과 동포자녀에 대한 모국 이해 차원의 국어 교육 지원, 외국 교육기관의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에 대한 지원	민간 자생적으로 설립된 한글학교를 통해 재외동포에게 민족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등 교육 지원
업무영역	외국인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추진	해외 초·중·고교 내 한국어 과목(제2외국어) 채택 사업(정규교육과정) 및 재외동포 교육 활동 지원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 한국학(한국어) 진흥 추진
교육 대상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 한국 학교: 일시 체류민, - 재외동포 자녀 - 한국 교육원: 재외동포 현지 정규학교 학생	재외동포 청소년, 외국인, 현지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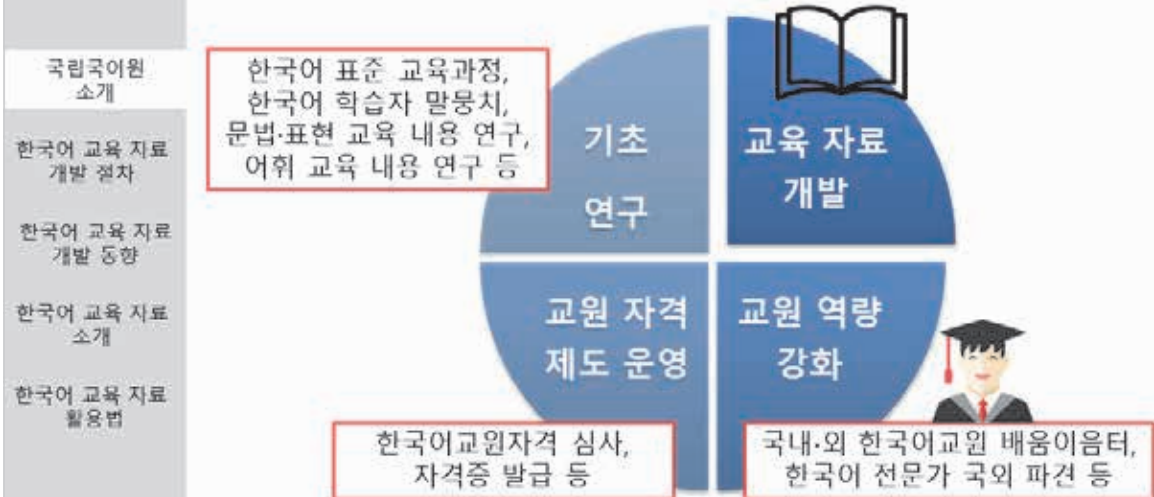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기관 유형 및 관계 부처(국외)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국립국어원 소개	관련 법률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 · 외국인 대상 세종학당 운영 (비정규교육과정)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행 ·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보급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대상 한글학교 운영 (비정규교육과정)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관련 업무 (신하기관 포함)	[국립국어원] · 외국인용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 한국어교원의 결정 및 자격 부여 및 재교육 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 관련 학술연구 등	[한국국제협력단] · ODA 사업 일환으로 파견된 해외봉사단원이 한국어 교육 [한국국제교류재단] ·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대상 한국학(한국어) 진흥(정규교육과정)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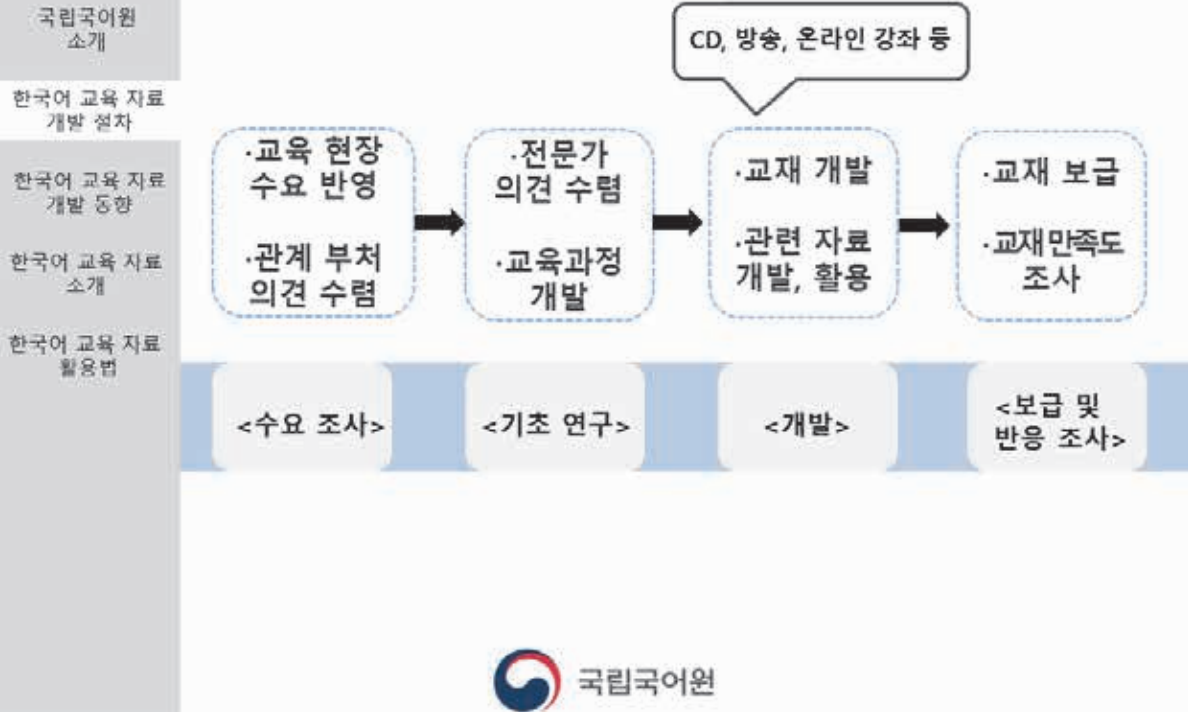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 ① 교육 수요는 있으나 시장성이 없거나,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온라인 교육 자료, 방송 교육 자료, 기초 연구가 필요한 교육 자료 등을 개발
 - ②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이 강한 교육 대상과 영역**의 교육 자료를 개발
 - ③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요구와 목표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재 개발
 - ④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교육 현장의 수요와 학습자 요구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맞는 표준화된 학습 자료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내)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결혼이주민 대상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개정판+다른 구성 체계
- 제작 과정에서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교재 구성: 교재(정확한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교사용 지도서
- 즐거운 한국어: 말하기·듣기 활동 중심(구어 능력 향상, 유창성 중심)
- 정확한 한국어: 읽기·쓰기 활동 중심(문어 능력 향상, 정확성 중심)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내)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초·중고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정·고시(2017년)에 따라 개발
- 초·중고 한국어학급 등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
- 교재 구성: 교재(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익힘책+교사용 지도서
- 의사소통 한국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용을 돕고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신장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배우기



- 다문화가정 유아(3~8세)를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재 및 교구 세트
- 총 3단계 6수준으로 개발, 각 수준마다 28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재 구성: 꼬마시전, 그림책, 활동책, 오디오 CD
- 다양한 놀이와 음률 활동을 포함한 아동 중심 교육 자료
- 함께 배우는 활동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언어적 상호 작용 증진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외)



재외동포 유아 대상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
(Fun Korean)



- 누리 과정에 근거한 재외 동포 미취학 유아(만 3~6세) 대상 교육 자료
- 유아의 이중 언어 능력 증진 및 올바른 언어·문화 정체성 함양
- 교재 구성: 유아용 활동지, 한글 놀이, 큰 그림책, 교사용 지도서(영어, 러시아어권, 일본어권)
-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활동지
- 유아의 언어와 인지 발달에 필요한 18개의 주제를 두 단계의 난이도로 구성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외)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개정)세종한국어

-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학습자 대상 표준 교육 자료
- 세종한국어의 내용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개발 및 출판(2022. 9)
- 교재 구성: 교재(한국어, 영어), 더하기 활동(한국어, 영어),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 '세종학당 한국어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
- 세종학당 및 국외 성인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과 절차를 적용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외)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범용 학습자 대상



초급 한국어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분권하여 개발
- 여러 한국어 교육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 교재
- 교재 구성: 언어권별 교재(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 각 영역들이 주제나 장면을 공유하여 연관 관계를 가짐
- 교재 사용 대상자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수준으로 설정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책자형 교육 자료(국외) 
국립국어원 소개	범용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중급 한국어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 한국어'의 후속 교재(범용 교재) ●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개발한 교재 ● 교재 구성: 언어권별 교재(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 해외 한국어 교육 여건 및 보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권형 교재로 개발 ● 교재 사용 대상자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수준으로 설정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멀티미디어형 교육 자료 
국립국어원 소개	사랑해요 대한민국(발음 편, 대화 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입문용 교육 자료 ●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개발 ● 구성: 발음 편, 대화 편 ● 한글 지모의 형태와 발음 등 기초적인 내용을 교수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멀티미디어형 교육 자료

두근두근 한국어1~4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 드라마, K-POP 등 한류 콘텐츠 활용 교육 자료(KBS World송출)
-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구성(총 92편)
- 구성: 영상 자료, 교사용 지도서
- YOUTUBE 및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시청 가능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멀티미디어형 교육 자료

씽씽 한국어1~2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 예능 프로그램, K-POP 등 한류 콘텐츠 활용 교육 자료(YTN World송출)
- 10분 내외 영상 25편(씽씽 한국어1), 5분 내외 영상 40편(씽씽 한국어2)
- 구성: 영상 자료, 교사용 지도서
- YOUTUBE 및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시청 가능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1. 한국어교원을 위한 온라인연수

한국어 문법 교수법 강좌

명사 + 은/는 ⇒ 문장이나 단락의 중심 내용, 주제

은/는의 용법
이/가의 용법
은/는, 이/가의 용법 비교

방주 : 한국어 교수법 채교재 : 국립국어원
 영역 : 문법 유형 : 동영상 등록일 : 2016-03-29 저널 : 표헌
 학습자 단계 : 초급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2.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교육자료 소개

국내외, 연령별, 학습자별
한국어 교육 자료
(교재 전자책, 지도서, 음원 자료)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3. 한국어교육 연구 기초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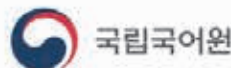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4.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번호	구분	제목	첨부파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	공지	『개론한국어』(2021) 4월 부록 차등(PP) 관련 안내		관리	2022-10-11	1025
13	공지	『문법』(2022년 사회용집문법)용 한국어교과용 배움이음터 참가자 모집 공고		관리	2022-09-16	68
12	공지	『문법』(2022년 한국어B2L) 4과 배움이음터 참가자 모집 공고		관리	2022-09-16	0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5. 배움이음터(한국어교원 연수) 자료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with a navigation bar containing '학습', '교재', '연구자료', '정보나눔터', '배움이음터', '검색기능', and '누리집 소개'. The '배움이음터'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hand icon.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연수' (Training) and '연수 자료실' (Training Resource Room). A table lists training courses with columns for '번호' (No.), '년월' (Year/Month), '제목' (Title), '연수기간' (Training Period), and '등록일자' (Registration Date).

번호	년월	제목	연수기간	등록일자
88	2022.10월	2022년 10월 11일~13일 한국어교원 연수(배움이음터)	2022.09.11 ~ 2022.09.11	2022.09.13
89	2022.10월	2022년 10월 14일~15일 한국어교원 연수(배움이음터)	2022.09.10 ~ 2022.09.10	2022.09.13
87	2022.10월	2022년 10월 16일~17일 한국어교원 연수(배움이음터)	2022.09.04 ~ 2022.09.04	2022.09.13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일정
연수 발자취(연수 영상)
연수 자료실(강의 원고)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interface with a navigation bar containing '학습', '교재', '연구자료', '정보나눔터', '배움이음터', '검색기능', and '누리집 소개'. The '배움이음터'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hand icon.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문법·표현 내용 검색', '어휘 내용 검색', '교수 자료 검색', and '검색 검색'. A search box contains the text '자음별 검색', '등급별 검색(초급, 중급)', and '범주별 검색'. Below the search box,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자음별 검색', '등급별 검색', '범주별 검색', and '검색 검색'. A search box contains the text '자음별 검색', '등급별 검색(초급, 중급)', and '범주별 검색'. Below the search box,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자음별 검색', '등급별 검색', '범주별 검색', and '검색 검색'.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표제어

-계¹][연결어미] **초급** **보통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의미와 용법 **펼치기**

예문 **펼치기**

도입 **펼치기**

형태 정보 **펼치기**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펼치기**

확장 **펼치기**

유사 문법 **펼치기**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전체 **펼치기** **펼치기**

인기검색어 **초급**

표제어 등급 확인
⇒ 학습자 수준별 문법·표현 내용 선정

표제어

-계²][종결어미] **초급** **국제 표준모형 초급**

의미와 용법

학습자 입장을 고려한
의미와 용법 정의

-상대방의 의도를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물을 때 사용한다. '오려고'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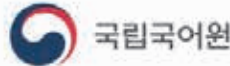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예문
검색

대화 예문	<p>(1) 가: 누나 뭐 해요? 나: 반죽 만들고 있어. 가: 그걸로 뭐 하게요? 나: 부칠게 만들려고.</p> <p>(2) 가: 영수아, 이번 방학에 뭐해? 나: 아직 계획을 못 잡았어. 가: 나랑 같이 갈래? 나: 어딜 가게? 가: 제주도도 차전기 여행 가려고.</p>	<p>활용 가능한 실제적 예문 제시 (대화/문장 수준) ⇒ 수업 시간에 추가적인 예문으로 직접 제시</p>
문장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체건을 먹게? · 할 일이 많겠는데 뭘 할 거예요? · 어떻게 고향에 가게? · 음 전에 뺨을 샀는데 또 사과를 시게? · 벌써 집에 오게? · 나우로 뭐 하게요? · 남은 음식을 다 버리게요? · 시험이 끝났는데도 공부하게? · 10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가게? · 이제부터 매일 운동하게요? 	

* '그걸로 뭐 하게요?'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의 비격식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게1)'은 비격식적 상황에서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묻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도입
검색

	<p>(1) 교사: (질문에 '주말의 계획'을 적은 뒤에) 마이클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주말에는 친구들과 야외로 놀러 가려고 해요. 교사: 주말에 소풍을 가려고요? 주말에 소풍을 가게요? 학생: 네, 주말에 날씨가 좋다고 해요. 교사: 주말에 할 일을 물어보려고 할 때 '게1)'을 쓸 수 있어요. '주말에 소풍을 가게요', '집에서 공부하게요'처럼 말할 수 있어요.</p> <p>(2) 교사: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영 씨,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학생: 예, 한국 소설을 읽고 싶어요. 교사: 어떤 소설을 읽어 보려고요? 어떤 소설을 읽어 보게요? '게1)'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을 때 쓸 수 있어요. 어떤 소설을 읽어 보게요? (동일한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한다) 학생: 쉽고 짧은 소설부터 읽고 싶어요. 교사: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읽어 보시겠어요? 학생: 예, 혹시 수업 다치고 연구실로 가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교사: 오늘부터 읽어 보게요? 학생: 예, 오늘은 수업이 끝나서요.</p>	<p>수업에 적용 가능한 도입부 대화 제시</p>
--	--	--

* '게1)'은 학생의 회도를 확인하거나 물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여 사용한다. '오려고 (하다)'를 학습한 뒤에 '하게'를 학습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게'를 쓴다.

예)	맞+·게 → 맞게	안+·게 → 안게
	막+·게 → 막게	보+·게 → 보게
	가+·게 → 가게	사+·게 → 사게

①	받침 o	+·게	씻게, 얻게, 막게
	받침 x	+·게	보게, 가게, 사게

교수 학습이 필요한
문장 구성 정보 제시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을 주로 사용한다.

예) 내일까지는 다이어트 **안** 하겠어? (o)
내일까지는 다이어트 꼭지 **안** 겠어? (x)

12시가 넘었는데 **안** 자겠어? (o)
12시가 넘었는데 **자**지 않겠어? (x)

② '-게'는 구어적 상황에서 친구나 어긋사람에게 사용하며, 젊은 사람이 잊사람이거나 높이어 할 사람인 경우에는 해요체의 '-게요'를 쓴다.

예) 또 치킨을 **먹**게요?
내일이 시험인데 **놀**게요?
고향에 **가**게요?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6. 문법·표현 내용 검색

제약 정보

① '-게'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 운동을 싫어하다니 이례는 **운동하**게? (o)
자주 칭소하니 같이 **재깁**게? (x)
동생은 어린이지만 키가 **크**게? (x)

② '-게'는 상대방의 의도를 들으므로 1번칭과 3번칭 주어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예) 난 오늘부터 매일 **운동하**게? (o)
너는 오늘부터 매일 **운동하**게? (o)
그/그녀는 오늘부터 매일 **운동하**게? (x)

③ '-게'는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 현재 '-는'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버스로 **고향에 갔**게? (x)
버스로 **고향에 가**겠게? (x)
버스로 **고향에 가**는게? (x)

교수 학습이 필요한
확장 정보 제시

확장

① '-게'는 한번 짐작해서 답해 볼 것을 권할 때에도 쓸 수 있다.

예)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게?
그 친구의 발명이 **위**게요?

• 이 경우에는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7. 어휘 내용 검색

단어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품사 정보 활용하기

통합 검색 | 단어별 검색 | 의미 관계별 검색 | 의미 범주별 검색 | 주제 및 기능별 검색 | 활용 목적 검색 | 알려두기

알차

수준 초급 중급 고급 수준 전체선택

범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이상

한국어 사용 빈도(2009) 이상

품사 접사 의존명사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줄어든 말 대명사 수사 감탄사 품사 전체선택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7. 어휘 내용 검색

단어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품사 정보 활용하기

통합 검색 | 단어별 검색 | 의미 관계별 검색 | 의미 범주별 검색 | 주제 및 기능별 검색 | 활용 목적 검색 | 알려두기

알차

🔍 해당 검색 결과 3건

어휘	관련어휘	품사	수준
-7902	문명사	명사	초급
-7904	주제사	명사	중급
-7906	회고사	명사	중급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7. 어휘 내용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단어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품사 정보 활용하기



한국어 어휘의 조어 방식을 이해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7. 어휘 내용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단어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품사 정보 활용하기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7. 어휘 내용 검색

의미 관계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수준 및 품사 정보 활용하기

통합 검색 | 단어별 검색 | 의미 관계별 검색 | 의미 범주별 검색 | 주제 및 기능별 검색 | 활용 목록 검색 | 일러두기

위치

수준 초급 중급 고급 수준 관계선택

발도

한국어 사용 번호(2009)

품사 접사 미온명사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줄어든 말 대명사 수사 감탄사 품사 관계선택

유의어 검색 **5563** 건

가01	장가	명사	2건
가06	최고가	명사	2건
가08	가게에 가다	명사	4건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7. 어휘 내용 검색

의미 관계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수준 및 품사 정보 활용하기

통합 검색 | 단어별 검색 | 의미 관계별 검색 | 의미 범주별 검색 | 주제 및 기능별 검색 | 활용 목록 검색 | 일러두기

위치

유의어 검색 **2** 건

공방	금방 쓰여질 것 같다	부사	1건
비로	비로 시작하다	부사	1건

반의어 검색 **0** 건

상위어 검색 **0** 건

하위어 검색 **0** 건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7. 어휘 내용 검색

의미 관계별 검색 활용하기: 관련어 및 구 구성 정보

통합 검색 | 단어별 검색 | 의미 관계별 검색 | 의미 범주별 검색 | 주제 및 기능별 검색 | 활용 목록 검색 | 일러두기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초급 수준의 어휘 목록	검색어	종사	수준	유의 관계의 어휘 목록
가이1	장기	명사	2급	가장자리
가이5	피고자	명사	2급	국
가계	가계의 가다	명사	4급	상황 종료
가계02	가계의 위배다	명사	4급	안.공백.공공
가계02	가계가 박멸하다	명사	2급	없힐.없힐.없히
가구01	가구 조목	명사	2급	세디안
가급계01/가급계02	가급계 할미	명사.부사	2급	피도록
가미소로	가미소로 날아났다	명사	2급	간신히 겨우
가무다	희롱을 가무다	명사	5급	무인도
가질	가질 보다	명사	5급	해체용.이마길
가난	가난을 죽다	명사	6급	빈곤
가날보다	가수리가 가날보다.곰이 가날보다	명동사	2급	가어마다
가느다랗다	순가래이 가느다랗다	명동사	2급	가늘다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7. 어휘 내용 검색

예시

* 서로 비슷한 어휘를 연결하십시오.

가장	●	●	대부분
그대로	●	●	그냥
금방	●	●	곧
거의	●	●	반드시
꼭	●	●	제일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7. 어휘 내용 검색

의미 관계별 검색 자세히 찾기 활용하기

가전제품



□ 가습기 □ 텔레비전 □ 소파 □ 냉장고 □ 전자레인지

상위어-하위어 검색 결과 활용한 문제 예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7. 어휘 내용 검색

의미 범주별 검색 활용하기

통합검색 | 단어별 검색 | 의미 관계별 검색 | 의미 범주별 검색 | 주제 및 기능별 검색 | 활용 목적 검색 | 일러두기

입력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찾기 자세히 찾기

개념				
인	색은 알	위치 및 방향	번호	속도
업술	모양	의문	경도	성질
지역	인칭	역할	말기	운동
시간	수	순서	지시	
● ● ●				
인간				
감각	감각	능력	사람의 종류	상관 현상
성격	소리	신체 내부 구성	신체 변화	신체 부위
신체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용모	인자 행위	척력 상태
태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7. 어휘 내용 검색

주제 및 기능별 검색 활용하기

예시 *다음은 '집안일' 관련 어휘입니다. 다음을 이용하여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걷다, 걸레, 널다, 다리다, 다리미, 다림질, 담요, 대청소, 더러워지다, 더럽히다, 말리다, 먼저, 못, 바늘, 실, 쓸다, 씻기다, 얼룩, 일손, 입히다, 재우다, 주전자, 집안, 청소기, 치우다, 털다



- 1) 집안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집안일은 무엇입니까?
- 3) 집안일을 하는 로봇이 있다면 그 로봇에 필수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8. 교수 자료 검색



교재정보
단원, 차시, 주제

문법/어휘
대화/표현/활동
발음/담화/문화
듣기/수준/대상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8. 교수 자료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전체 ▼ 나라고 🔍

자료 검색 ● 17건

문법	교재	내용	자세히 보기
· 나라고	이수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2	· 숙달하기	더보기 +
· 나라고	중급 한국어 2(배려님어)	· 교육에 관한 인터뷰 듣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 한국어 학습 방법 읽고 자신의 방법 말하기 · 재미있는 관련 뉴스 듣고 쓰기	더보기 +
· 나라고	중급 한국어 2(동굴어)	· 교육에 관한 인터뷰 듣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 한국어 학습 방법 읽고 자신의 방법 말하기 · 재미있는 관련 뉴스 듣고 쓰기	더보기 +
· 나라고	중급 한국어 2(필리핀어)	· 교육에 관한 인터뷰 듣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 한국어 학습 방법 읽고 자신의 방법 말하기 · 재미있는 관련 뉴스 듣고 쓰기	더보기 +
· 나라고	중급 한국어 2(영국어)	· 교육에 관한 인터뷰 듣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 한국어 학습 방법 읽고 자신의 방법 말하기 · 재미있는 관련 뉴스 듣고 쓰기	더보기 +
· 나라고	중급 한국어 2(장바)	· 교육에 관한 인터뷰 듣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 한국어 학습 방법 읽고 자신의 방법 말하기 · 재미있는 관련 뉴스 듣고 쓰기	더보기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

08. 교수 자료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검색결과 : · 나라고

교재

주제

기능/재제

관련 자료

이수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2 분실교재 연습 016

3 다음을 <보기>와 같이 만드십시오.

보기

생에서서 드러내를 보다 / 잠을 못 지다
→ 생에서서 드러내를 못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1) 힘든 작업을 하다 / 약속을 못 지키다
→

2) 좋은 집을 알아보다 / 회사에 늦었어요
→

3) 음악을 듣다 / 전화 벨소리를 못 듣다
→

4) 놀다 / 숙제를 못 했어요.
→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https://kcorpus.korean.go.kr>)

로그인

회원가입

도움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찾기

말뭉치 통합 검색

알립니다

2015-2019년 구족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표본 정보... 2020-05-28

★자료 신청★ 2019년 구족 학습자 말뭉치 자료 받... 2020-05-28

2019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머지데이 안내(11월) 2019-10-14

2015-2018년 구족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표본 정보... 2019-06-21

2019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머지데이 안내(7월) 2019-06-13

관련 누리집

주식
언어정보
나눔터

한국어거주
사전

한국어교육
학습센터

한국어교육
특성센터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1 말뭉치란

- ◆ **말뭉치**: 언어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
-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텍스트 및 담화 자료를 수집하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산화한 언어 자료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원시 말뭉치

- 작문 또는 음성 파일을 입력/전사하여 전산화한 텍스트
- 주석 가공이 되지 않은 자료

형태 주석 말뭉치

- 원시 말뭉치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
- 품사 표지를 부착하여 가공한 자료

오류 주석 말뭉치

- 원시 또는 형태 주석 말뭉치에서 학습자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오류 표지를 부착하여 가공한 자료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01 말뭉치란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교원 및 연구자를 위한 자료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대량의 정보를 검색으로 확인하여 연구에 참고 및 수업 활용

⇒ 원시 말뭉치, 형태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검색을 통해 학습자 언어 사용 현황을 살피고,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 참고

학습자를 위한 자료

쓰기 과제 참조용으로 활용

⇒ 원시 말뭉치, 형태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검색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현황을 살피고, 자신의 작문 자료를 평가하거나 언어 정보 등을 익혀 실제 쓰기에 활용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02 원시 말뭉치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원시 말뭉치 검색 / 원시 말뭉치에서 검색어를 찾습니다. 이용안내

검색어: →

검색어 포함 조건: 그리고

검색 조건

학습자 말뭉치 원 형태 전사 표본 자료 ⇒ 대량의 학습자 말뭉치 수집 자료 확인 (and/or 검색)

표본 검색 결과 (검색 전역사 상세정보조회)

검색된 표본 : 15,657개 (45.50%), 검색된 어휘 : 41,798건 (5.53%) ● 비한국어(학습자) 말뭉치 기준 교육어: 가나다순 ▾ | 20개의 보기 ▾

연번	교육어	급수	분해
1	견디어	3급	있다 표본소의 공부부터 표본소어인 친구들을 시골의 예전보다 서울 거리로 생각한다.
2	견디어	3급	모토 시그널과 그곳에 가네요.
3	견디어	3급	지난 학기에는 무리만 친구들과 분간에 가 했는데 잘못 되어 예방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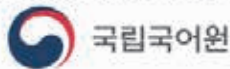
04 오류 주석 말뭉치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학습자 말뭉치 오류 주석 표시 자료 => 원 자료에 대한 오류 주석 정보 확인 (and/or 검색)

말뭉치에 주석된 오류 정보를 중복 선택하여 검색

연번	목적어	급수	원어 발음	음성어	교정 형태	오류의 성격	오류 주석
1	목적어	1급	해지안 치공 중국	해지안	정구(안)	치어기하고 중국	오류 주석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04 오류 주석 말뭉치 검색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오류 주석 말뭉치 검색

자소 검색

음소 단위로 찾고자 하는 형태를 검색

연번	목적어	급수	원어 발음	음성어	교정 형태	오류의 성격	오류 주석
1	내일환주목	3급	주리호(주목)	주리호	주(목)	치어기하고 치어기하고	오류 주석
2	내일환주목	4급	주리호	주리호	주(목)	치어기하고 치어기하고	오류 주석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05 통계 기능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구축 개요 학습자 말뭉치 구축 현황을 나타냅니다.

구축 현황

447건	2015.5.~2021.12.
수집 목표량	142건
수집률	314.1%

구축 규모 (2021.4.4) ① 4차 산업혁명, 1차 4차 산업혁명 관련 한국어 말뭉치 구축

	합계		영어		국어	
	어절 수	문장 수	어절 수	문장 수	어절 수	문장 수
총서 말뭉치	5,733,479	34,347	1,697,397	11,201	1,521,477	1,144
영어 국사 말뭉치	1,704,989	28,002	2,602,914	22,641	1,181,672	2,481
요류 국사 말뭉치	1,148,000	6,747	693,424	5,928	542,642	1,216

말뭉치 수집 현황, 주석 표지별 현황, 오류 주석, 검색어, 배포 현황 통계를 확인
⇒ 다양한 연구에 대한 참조(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06 말뭉치 나눔터 활용 예시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11	말뭉치	1급	4시부터 6시까지	전국학교	전구/닝/오	영화를 봅니다.	<input type="button" value="말뭉치상세"/> <input type="button" value="오류상세"/> <input type="button" value="오류 수정"/>
목적정보	4시부터 6시까지		전국학교	영화를 봅니다.			
구성결과	4시부터 6시까지 전구학교(전구+오) 영화를 봅니다.						
	상태	오류 위치	오류 영상	오류 수정			
상세 정보	전구	일반상사	오류상	말뭉치 수정			
	학교	부사과조사	대사	국어/영어 오류			
국적	중국	모국어	한국어	나이	25	직업	학생
학습 기관	비공개	학습 목적	가주	한국어 급수	1급	말뭉치 유형	문어

국적, 모국어, 수준 등의 변인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형태를 살펴 보고, 이를 참조하여 쓰기 과제 수행 또는 오류 수정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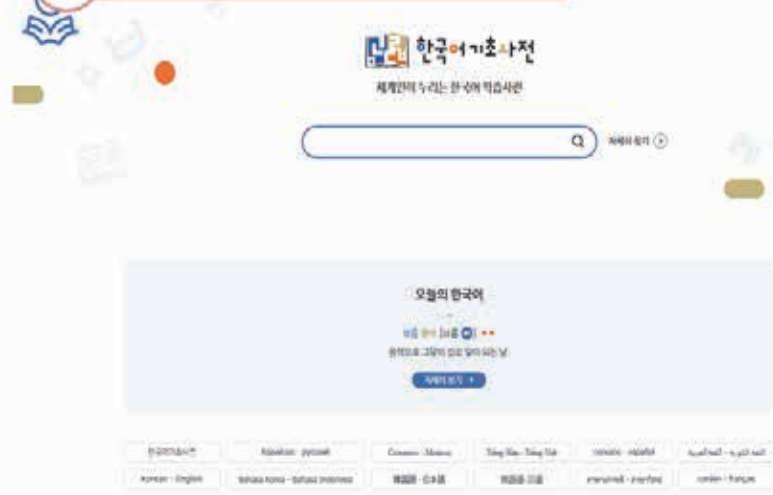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1. 한국어기초사전 소개

1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5만 어휘 수록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2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 예문 제시

사과¹ (沙果/砂果) ...
 발음 [사과¹]

명사
 모양이 둥글고 붉으며 새콤하고 단맛이 나는 과일.

구

- 빨간 사과.
- 사과 꺾기.
- 사과를 따다.
- 사과를 먹다.
- 사과를 사다.
- 사과를 씻다.

어머니는 후식으로 사과를 깎아 주셨다.
 언니는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문장

가: 명절인데 친척들한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요즘 사과가 맛있는 걸인데 사과를 한 박스씩 선물하면 어때요?

표준국어대사전

사과⁵ (沙果/砂果) ...
 발음 [사과⁵]

「명사」
 사과나무의 열매. 녹린파, 명과.

- 할갈게 익은 사과.
- 사과 껍질.
- 사과 세 질.

대화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2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 예문 제시

학교 (학교) ***
 발음 [학교*]
 명사
 일정한 목적, 교육 과정, 제도 등에 의하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

- 학교를 설립하다
- 학교를 개교하다
- 학교를 졸업하다
- 학교에 가다
- 학교에 다니다
- 학교의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친구들과 교실에 남아 공부를 했다.
- 유정환에 다니는 딸도 내년이면 여덟 살이 되어 학교에 가게 된다.
- 초등학생인 다음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곤 한다.
- 가: 학교를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나: 뭐라해서 드 물어봐지.

학원 (학원) ***
 발음 [허원*]
 명사
 1. 일정한 목적, 교육 과정, 제도 등에 의하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

- 학원 재단
- 학원을 운영하다
- 사립 학원 재단은 공립 기관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 교육청은 초·중·고 수준의 학원 비리를 대대적으로 척박하였다.
- 가: 이 지역은 왜 학교보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관이 다른 거요?
 나: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학원의 자율에 맡기거든요.

어휘 교수를 위한 다양한 예문 활용 가능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3 어휘별 다중 매체 정보와 관련어 정보

다중 매체 정보

어휘 (3)

'책상' 이(가) 포함된 찾기 결과

품사 발음 한국어 수준(초급)

책상 (冊床) "명사", [책상*] ***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볼 때 앉는 가구.

책상다리 (冊床다리) "명사", [책상다리*] **
 한쪽 다리를 잡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얹는 다리.

책상머리 (冊床머리) "명사", [책상머리*] **
 책상의 한쪽 자리.

관용구 속담 (1)

관용구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멍들거나 문서만 보고 세월을 보내다.

- 가: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다고 사건이 해결되니?
 나: 안 그래도 지금 막 현장에 가리던 참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3. 어휘별 다중 매체 정보와 관련어 정보



저작권	저작권 표시: 필수 상업적 이용: 허용 저작물 변경: 동일한 적용 조건이면 허용 저작권의 자세한 사항은 CC BY-NC-SA 라이선스 를 참고하십시오.
출처	국립국어원
제작자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2. 범주별 찾기 - ① 주제 및 상황 범주별 찾기

범주별 찾기 | 사전 통계 | 작은 창 사전

한국어기초사전

주제 및 상황 범주별 찾기

주제	상황
<input type="checkbox"/> 인사하기	<input type="checkbox"/> 출근하기
<input type="checkbox"/> 소개하기(자기소개)	<input type="checkbox"/> 개인 정보 교환하기
<input type="checkbox"/> 소개하기(가족소개)	<input type="checkbox"/> 구매 이용하기
<input type="checkbox"/> 개인 정보 교환하기	<input type="checkbox"/> 의료 상담
<input type="checkbox"/> 임시 표현하기	<input type="checkbox"/> 교통 이용하기
<input type="checkbox"/> 질문하기	<input type="checkbox"/> 의료 상담
<input type="checkbox"/> 교통 이용하기	<input type="checkbox"/> 의료 상담
<input type="checkbox"/> 물건 사기	<input type="checkbox"/> 의료 상담
<input type="checkbox"/> 음식 주문하기	<input type="checkbox"/> 의료 상담
<input type="checkbox"/> 요리 설명하기	<input type="checkbox"/> 요리 설명하기
<input type="checkbox"/> 시간 표현하기	<input type="checkbox"/> 요리 설명하기
<input type="checkbox"/> 날씨 표현하기	<input type="checkbox"/> 요리 설명하기

찾기 결과 (총 56개)

값싸다 「형용사」 [값싸다] **
1.무엇을 사거나 쓰는 비용이 적다.
2.기치가 적거나 실이 낮다.
3.행동이 조심스럽지 않고 가볍다.

거스름돈 「명사」 [거스름돈] **
치리아 할 돈을 빼고 도로 주거나 받는 돈.

결제 (決済) 「명사」 [결재] **
물건값이나 내어 줄 돈을 주고 거래를 끝냄.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2. 범주별 찾기 - ② 의미 범주별 찾기

범주별 찾기 | 사전 통계 | 작은 창 사전

한국어기초사전

'주생활' 건물 종류' 찾기 결과 (총 12개) 사전 내려받기

주제 및 상형 범주별 찾기 **의미**

대분류

- 인가
- 주생활
- 종교
- 동식물

소분류

- 관계
- 생활 용품
- 가사 행위
- 건물 종류
- 주택 구성
- 주거 상태
- 주거 행위

건물 (建物) 「명사」 [건:물] ***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

빌딩 (building) 「명사」 ***
주로 사무실이 많이 있는 시향적 고층 건물.

아파트 (-apartment) 「명사」 ***
한 채의 높고 큰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게 지은 주택.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01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5만 어휘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 예문

이취급 다중 매체 정보와 관련어 정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는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이용해 보세요.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사전	한국어-몽골어 학습사전	한국어-베트남어 학습사전	한국어-스페인어 학습사전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학습사전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한국어-타이어 학습사전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11개 언어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02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특징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Phát âm	[양해]
Từ phái sinh	양해하다, 양해하다
Từ loại	*명사, Danh từ

어휘 설명, 어휘 설명

다른 사람이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네가 쉽게 알아들음
 Ví dụ: hiểu và thông lượng chấp nhận và có sự tư tình của người khác.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설명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02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특징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كلمة الرؤية	كلمة الرؤية
اللغة الكورية - لغة عربية	اللغة الكورية
اللغة الكورية	اللغة العربية
اللغة العربية	اللغة العربية

언어별 특징과 국외의 인터넷 사용 여건 고려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원구)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설명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02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특징

- 국립국어원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절차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동향
- 한국어 교육 자료 소개
-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법



<제35차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질의응답



<제35차 국제한국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 K-티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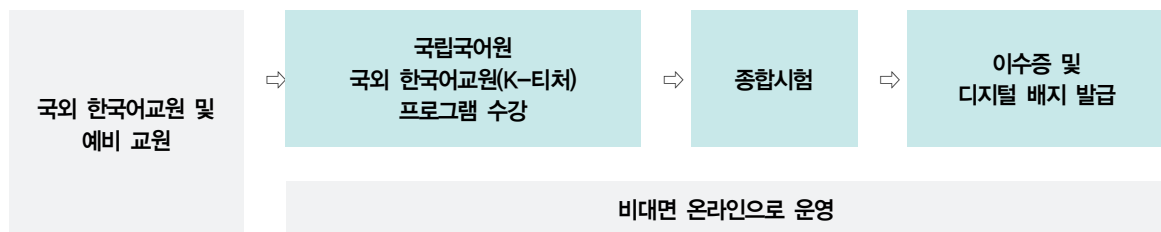
-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이승연(삼육대학교) · 김은애(경희사이버대학교)

1. 서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외 한국어교육과 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유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각 지역의 교수·학습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학습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외 한국어교원 및 예비 교원은 대부분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국내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및 양성 과정에서의 수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막대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접근성 높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2022년부터 국외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K-티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23년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티처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추가될 콘텐츠의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의 K-티처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개발된다. 우선 2023년 과정(2022년 개발)은 한글학교 교사 중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75차시)을 이수한 이를 대상으로 하며, 이론 과목과 실습 과목 총 57차시를 제공한다. 2024년 이후 과정(2023년 개발 완료)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등을 전공한 외국 국적자와 국외 한국어교육기관의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 과목 100차시와 실습 과목 30차시, 총 130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림 1] 2023년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요

K-티처 프로그램과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K-티처 프로그램〉과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의 비교

기준	K-티처 프로그램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목적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및 재교육 수요에 대응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
결과 (발급 주체)	K-티처 프로그램 이수증 국립국어원장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이수증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비용	무료	무료
과정 구성	(범용과정) 130차시 (이론 과목 100차시, 실습 과목 30차시) 교육 대상에 맞게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모듈형 콘텐츠 구성 가능 *2023년 프로그램은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정규(또는 단축)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함(57차시 수강)	1단계: 25차시 2단계: 50차시 실습 과목 없음
평가	온라인 평가(종합시험) 응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	별도의 종합평가 없음 강의 중 퀴즈 수행

2. 2023년 K-티처 프로그램 개발 과정

2.1.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회의

K-티처 프로그램 중 2023년 한글학교 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한글학교 교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¹⁾

2.1.1. 자문 조사

1) 자문단 구성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 장의 추천을 받은 한글학교 교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한글학교 교사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현재 한글학교 근무 중’이며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75차시를 수료’한,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한글학교 교사다.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를 4그룹(북미, 북미(캐나다)-중남미, 유럽-CIS-아프리카-중동, 아시아대양주 등)으로 나누고 조사 담당 연구원 4명이 한 그룹씩 담당하여 서면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K-티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진 의견 수렴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글학교 교사 자문단 대상의 자문 회의가 2회,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기관 관계자 대상의 자문회의가 1회 진행되었다. 이 발표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한글학교 교사 자문단 대상의 1차 자문회의 절차와 결과만 기재하였다.

2)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1차 자문 조사에서 서면 조사는 자문위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응답을 취합한 후 분석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는 온라인 실시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서면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설명과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대륙별 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 자문 조사의 기간과 진행 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글학교 교사 자문진 대상 1차 자문 조사 진행 절차

기간	조사 진행 절차
6.13.(월)~6.17.(금)	대륙별 협의회장 추천자 취합 및 자문단 참여 한글학교 교사 명단 확정
6.20.(월)~7.1.(금)	1차 서면 조사 자료 작성 및 취합 완료
7.4.(월)~7.8.(금)	1차 서면 조사 자료 결과 분석
7.11.(월)~7.22.(금)	2차 온라인 실시간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취합
7.25.(월)~7.29.(금)	2차 온라인 실시간 인터뷰 자료 결과 분석 및 종합

서면 조사지는 장소원 외(2017) 논문에 제시된 수요조사 항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본 사업팀에서 제안 당시 수행했던 예비조사 설문지의 항목과 결과(특히, 주관식 답변)를 참고하였다. 또한 2022년 3월에 있었던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 회장/국어원 간 간담회’의 건의 및 질문 사항도 고려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서면 조사지는 질의 응답자 기초 정보(이름, 소속 한글학교, 경력, 국적, 간략한 경력 소개)와 함께 ‘K-티처 프로그램의 이론 교과목과 실습 교과목의 구성’, 그리고 ‘K-티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서면 조사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1차 자문조사 문항(서면)

구분	주요 내용
I. (개발 예정인) 이론 교과목 관련	희망 교육 내용
	기존 인증과의 차별화 방안
	향후 개발 희망 교과목
II. (개발 예정인) 실습 교과목 관련	희망 교육 내용
	수업 참관 희망 대상 학급
	한글학교 대상 희망 참관 수업 내용
III.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방식 관련	실습 교과목 관련 상호작용 및 피드백 방안
	인증 프로그램의 일정
	인증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
	기타 제안

3) 조사 결과

한글학교 교사 자문진에 개발 예정인 이론 교과목(27차시, 6과목)의 목록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합하였다. 그 결과, 자문위원들은 다양해진 대상 학습자와 변화한 교수 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요구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교과목에 대해서도 개선과 내용 보강에 대한 요구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자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 내용에 관하여 학습자 대상별 교수법과 교과목 강의, 온라인 자료 및 다매체를 활용한 교수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요구와 함께, 교사를 위한 발음 교육과 문법 교육, 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기존 인증과정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습자 대상별 맞춤 교육과 변화하는 교수학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교수법 컴퓨터 및 다매체 활용, 평가 자료 개발 관련 교육 내용의 보강이 요구됨.
- 향후 개발 희망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을 구성하는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 영역을 균형감 있게 개발하되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자료를 포함하여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음.

개발 예정인 실습 교과목(30차시, 3과목)의 교육 내용과 참관 수업의 대상을 ‘일반 목적 학습자’와 ‘한글학교 학습자’로 정하여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학급 운영과 교수 기법에 대한 요구와 실습 수업 후 상호작용 및 피드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령, 학령, 숙달도별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기법, 수업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정보와 문화, 교사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실습 수업을 희망하였음.
- 한글학교 학습자 대상 참관 수업에 대해서는 연령별 맞춤 교육과정과 내용, 교재의 활용 방법을 알 수 있는 수업 외에도 온라인 기반 수업, 학습자 참여형 수업,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을 참관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음.
- 실습 수업 관련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위하여 SNS와 같은 매체로 게시판이나 댓글 등을 통해 강의자와 소통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메일이나 서면 질의응답으로 수업과 과제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음.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합한 결과, 각 지역 상황에서 여유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일정과 기회가 주어질 것을 희망하였으며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교육과정 플랫폼의 접근성을 수월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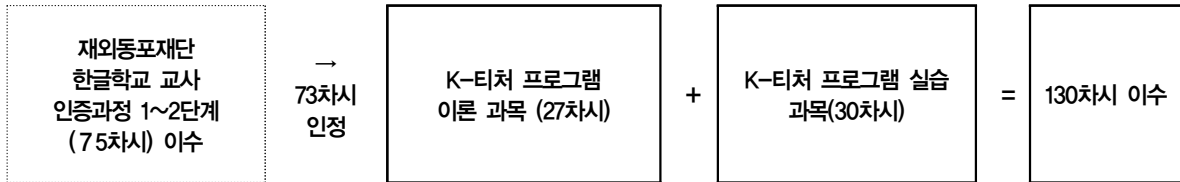
-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A안(수강 4개월, 평가 2개월)과 B안(수강 5개월, 평가 2개월)을 모두 선호하였으며 공통적인 의견으로 ‘수강생의 부담 경감’을 중시하였음. 또한 ‘각 지역의 학제에 맞는 운영 시기’를 희망함.
- 해외 인터넷 여건을 고려하여 ‘수강 사이트 등록 절차의 간소화’, 수강 과정에서 ‘이어서 학습하기’와 같은 기능 요구, 기술적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등을 희망함.
- 효과적인 온라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복습 형식의 퀴즈’, ‘수강생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강 관련 문의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기타 의견으로는 학습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대조언어학 수업, 현대 한국문화 교육, 정체성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대응, 가정 내 한국어 지도 및 안내, 교실 돌발 상황 대처 교육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 또한 수강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성적 우수자를 포상하는 방안 등도 제안하였음.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참여를 위해서는 K-터치 프로그램이 교사 고용 또는 평가 시 가점 부여로 이어지는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용 방

안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자문위원들의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 K-티처 프로그램(57차시)을 개발하였으며, 2023년 2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2.2. K-티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안

2023년 K-티처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요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2] 2023년 K-티처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요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의 과목 및 시수 구성은 <표 4>와 같다.²⁾

<표 4>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의 과목 및 시수

구분	과목명	시수	과목명	시수
이론	한국어학 개론	3	한국어 교수법1	6
	한국어의 역사	3	한국어 문법 교육론	6
	한국어 화용론	3	한국어 평가론1	6
	한국어 문법론	6	한국어 발음 교육론	3
	한국어 음운론	3	한국어 이해 교육론	4
	한국어 어문규정	3	한국어 표현 교육론	4
	한국어 어휘론	3	한국문화 교육론	6
	대조언어학	6	한국의 역사와 문화	6
	외국어 습득론	6	한국의 생활문화	6
	한국어 교육론	10	한국어 교수법2	4
실습	한국어교육 실습 이론	10	한국어 평가론2	3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 실습 참관	10	유아·아동 대상 한국어교육 실습 참관	10
			합계	총 130차시 (2023년 57차시)

2.2.1.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의 이론 과목 구성

개발 완료된 2023년 프로그램의 실습 과목의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다.

2) <표 4>의 음영 부분은 2023년도 운영을 위해 2022년도에 개발된 과목으로, 2023년 운영 시에는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정규과정 및 단축과정)을 이수 완료한 이에 한해 수강 가능하다. 정규과정은 범용과정이며 단축과정은 이미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국내 기관에서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일부 교과목의 수강을 면해 주는 과정이다. 정규과정과 단축과정이 아닌 활용과정(재외동포재단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만을 이수한 경우 K-티처 프로그램 수강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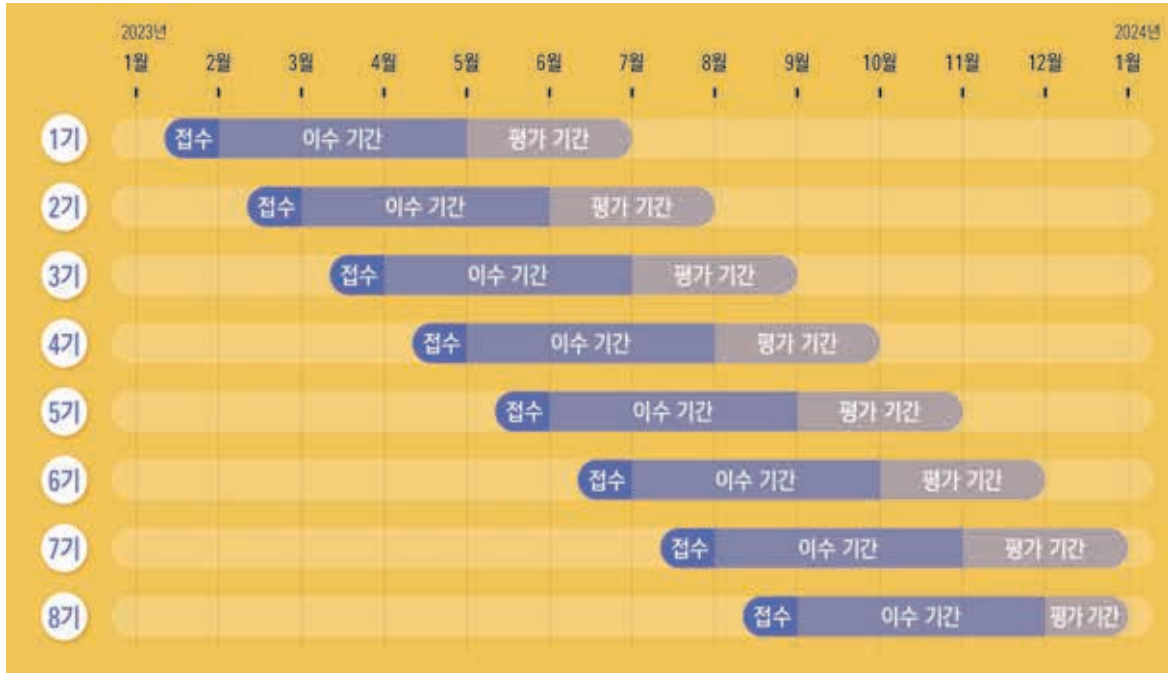
〈표 5〉 2023년 프로그램 실습 과목의 세부 내용(음영은 실제 수업 시연 촬영분)

과목		세부 내용	시수
한국어교육 실습 이론	교수 설계와 교실 수업 운영	교수 설계 한국어 수업 교실 운영	3
	교재와 교구 활용	교육 자료와 교구에 대한 이해 교육 자료와 교구 활용	4
	한국어교육 실습의 이해	한국어교육 실습의 목표 한국어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 전문성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	3
한국어 수업의 이해	초급 통합 수업 및 분석	초급 통합 수업의 실제	4
		초급 통합 수업의 원리, 특징 초급 학습자에 대한 이해	2
	중고급 통합 수업 및 분석	중고급 통합 수업의 실제	3
		중고급 통합 수업의 원리, 특징 중고급 학습자에 대한 이해	1
유아아동 ·청소년 학습자 대상 수업의 이해	아동·청소년 학습자의 이해	유아·아동 학습자의 특성 (정의적, 언어 능력과 수행 능력 등) 유아·아동 대상 수업 운영	2
	아동·청소년 대상 수업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수업의 실제	2
	유아 대상 수업 운영	아동 대상 수업의 실제	2
	유아·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분석	초등 수업에 대한 리뷰 유아 수업에 대한 리뷰 종합 대담	4

3. K-티처 프로그램 운영 현황

3.1. K-티처 운영 방안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은 총 8개 기수로 운영되며, 한 기수당 이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5.5개월이다. (접수 0.5개월+수강 3개월 + 평가 2개월). 수강생은 이론 및 실습 과목 57차시를 총 3개월 동안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종료 후 2개월 내에 만족도 조사와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 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23년 K-티처 프로그램 운영 연간 일정표

프로그램의 이수 조건은 이론 과목 이수율 80%, 실습 과목 이수율 95%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자는 온라인으로 국문 또는 영문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언어 선택 가능), 희망자에 한하여 오픈배지(디지털 배지)도 발급받을 수 있다(그림 4).



[그림 4] K-티처 프로그램의 이수증과 오픈배지 이미지

3.2. 지원자 및 이수자 현황

K-티처 프로그램은 현재 4기까지 진행 중이며, 지원자 및 이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K-티처 프로그램 지원자 현황(2023년 5월 14일 기준)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명)
미국	59	호주	4	벨기에	1
중국	28	아랍에미리트	3	브라질	1
캐나다	20	영국	3	스웨덴	1
일본	18	파라과이	3	스위스	1
독일	13	폴란드	3	스페인	1
필리핀	9	네덜란드	2	에콰도르	1
아르헨티나	8	우크라이나	2	인도	1
러시아	7	이탈리아	2	인도네시아	1
프랑스	7	태국	2	조지아	1
베트남	5	뉴질랜드	1	타지키스탄	1
멕시코	4	말레이시아	1	핀란드	1
합계					215

〈표 7〉 K-티처 프로그램 지원자 대륙별 현황(2023년 5월 14일 기준)



대륙별	인원(명)
아시아	65
북미	79
남미	14
CIS 및 동유럽	8
유럽(서·북·남)	38
중남미	4
중동 및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5
합계	215

* 2023년 5월 14일 기준 32명 이상

4. 결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인 K-티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K-티처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에서 한국어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교원들에게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 역량을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필기 시험 및 면접 시험) 응시가 어려웠던 국외 한국어교원들에게 프로그램 이수 후 다양한 경로의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단계에서 시작하여 초보 교사들도 수강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내용으로 마련하였다.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므로 학습자 변인, 교사 변인, 지역 변인 등이 세심히 고려되어야 했으나, 단시간에 제한된 재원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K-티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사가 처한 교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2024년에는 K-티처 범용과정(130차시 교육과정)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외 거주자로서 한국어교육 기관

소속 교원(사설 기관 제외)이거나 국외 대학에서 한국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등을 전공한 예비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K-티처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특화된 모듈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한국어교원이 현지의 특성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의 수요조사와 현장 분석을 실시하여 국외 교육 현장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K-티처 프로그램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앞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여 특화된 모듈 교과목들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국외 한국어교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방성원(2016), “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어교육 2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9-103쪽.
- 양명희 외(2021), 「한국어교원 보수 교육 제도 연구」, 국립국어원 보고서.
- 이승연 외(2022), 「2022-2023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1차 연도)」, 국립국어원 보고서.
- 이유원(2023), “국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종언어학회 45차 국내 학술대회 자료집.
- 이해영 외(2016),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보고서.
- 이해영 외(2017a),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현황 조사 및 시사점”, 새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학회, 83-113쪽.
- 이해영 외(2017b), “발전기 및 심화기 한국어 교원 재교육”, 우리어문연구 59, 우리어문학회, 383-407쪽.
- 장소원·이수마·김은애(2017),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인증제 프로그램 구현 방안”, 이종언어학 66, 이종언어학회, 79-105쪽.

일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범용 교재 활용 방안

이진경(건양사이버대학교) · 신윤경(가천대학교) · 장향실(상지대학교)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글학교용 범용 교재를 현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제작, 보급하는 범용 교재들이다.¹⁾ 그러나 전 세계의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범용 교재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한글학교의 지원 및 관리부처였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이관받아 설립하는데, 이는 동포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확대되면서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²⁾ 차세대들이 가지는 ‘이중정체성’의 원활한 확립과 외국인과의 결혼한 다문화 동포가정의 차별된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세대들의 변화는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식민지배’,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특성으로 정체성 유지에 훨씬 민감했다. 그러나 현재는 재일교포 자녀들 중 현재 학령기 아동의 86%가 일본 공립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김경령, 2019).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재일코리안, 한국계 일본인, 자이니치’라 응답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를 자신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요시다카르에, 2016; 마키로가르로, 2011).

현재 세계적으로 한글학교 수는 감소 추세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한글학교와 학생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이화숙 · 김남경, 2018: 127). 재외동포재단 스터디 코리안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본 한글학교 수는 2022년 기준 128개, 학생 수는 6,531명이다³⁾. 이로써 일본은 2022년 한글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가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 전 세계 국가별 통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⁴⁾

- 1) 교육부의 경우 2023년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사업’ 사업공모에서, 95개국 1,069개 재외교육기관에 610,902권의 교재를 보급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이 중 한글학교가 1,002개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60여만 권의 대부분이 한글학교에 보급된다고 할 수 있다.
- 2) 한글학교 지원연대, 『재외동포청 설립과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방향 정책 간담회 자료』, 2023.04.29.
- 3) 스터디 코리안 홈페이지 <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kei.HsiAction>
- 4) 2022 재외한글학교 현황(재외동포재단)

국가별 학교 수 TOP30		
1	미국	610

국가별 학생 수 TOP30		
1	미국	32,527

국가별 교사 수 TOP30		
1	미국	6,548

이를 통해 일본 재외동포 사회와 한글학교 상황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의 교육 내용도 일본의 현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교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범용 교재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교재를 자체 제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제작, 수정을 거쳐서 무료로 배포하는 범용 교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재 제작보다는 범용 교재를 사용하면서 일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 및 지역에 맞는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 때문에 교재 현지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선 이미혜(2009)에서는 현지화 교재를 국외 특정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환경, 학습자 특성에 맞춰 개발한 교재라고 정의하고, 현지화 교재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대학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의 특성 및 교재 사용자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화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현지의 교육 과정에 맞춘 교재는 기능 중심의 교재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며, 기능 간의 통합·분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상황을 골고루 반영하되 언어 사용 상황이 베트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조언어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비교하고 자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 교육 관점 등을 제시하였다.

김선정(2009)의 연구에서도 교재의 현지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프로토타입(prototype) 교재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 및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해외 초·중·등 한국어’를 사례로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에 미치는 요인, 교재 현지화의 대상을 중심으로 ‘교재 현지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지화 교재 구성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정란·이해영·이민경·씨리랏 씨리랏(2018)의 연구에서는 현지 교과서 개발 시, 현지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반영해야 하고, 교수·학습 상황 및 타 교과와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학입학시험 수준과의 연계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등 과정의 교과서는 청소년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고, 그들의 동적 활동성에 주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현지 전문가와 국내 교재 개발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지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현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권용혜(2021)에서는 현지화 교재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현지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구체적인 항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 중고등학생을 위한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항목을 정리하고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일본	128
3	캐나다	108
4	중국	94
5	러시아	73
6	호주	52
이하 생략		

2	일본	6,531
3	캐나다	6,224
4	중국	6,020
5	러시아	5,364
6	호주	4,672
이하 생략		

2	일본	1,005
3	캐나다	850
4	중국	641
5	러시아	518
6	호주	387
이하 생략		

지역별 연구로는 안경화·조현용(2009), 김미영(2017), 강승혜(2019), 김은경·정호선·유승원·오현아(2020), 이미향·유은미(2022) 등이 있다. 안경화·조현용(2009)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학권의 한국어 교재를 사례로 현지화 교재의 단일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고, 김미영(2017)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지화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승혜(2019)는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과제⁵⁾를 수행한 결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원리와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김은경·정호선·유승원·오현아(2020)는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미향·유은미(2022)에서는 터키 중등 한국어 교과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교재 개발의 제 변인을 살펴보았다.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지화 교재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박기선(2015)을 들 수 있다. 박기선(2015)에서는 일본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현지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한국에서 개발·보급한 교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 보완의 필요성과 재외동포의 특수성 및 일본 현지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바탕으로, 교재의 현지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한국과 현지 문화의 비교’와 ‘교재의 주제, 등장인물, 장소명 등의 현지 사정 반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지역의 한글학교 교재의 현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글학교 교사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재 사용 현황과 현지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 분석이 미흡하다. 또한 교재를 활용하거나 현지화하여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만을 인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한글학교 협의회에 해당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에서는 현지 맞춤형 교재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영어권 교재’를 개발하여 2023년에 배포하고⁶⁾ 있다. 이 교재는 한글학교 범용 교재를 현지에 맞게 수정·보완한 교재로, 문화 및 역사 단원을 추가하고 현지화하여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글학교는 아직 현지화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지금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현지화 교재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한글학교에서 현지화 교재 개발되기 전까지 일본 지역 상황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 교재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 사용에 대한 요구 조사

2.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방법

일본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재 사용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조사를 하고, 이 설문을 보완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 조사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5) 언어권별 맞춤형 교재 개발 사업,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행된 프랑스어권, 베트남어권 맞춤형 교재와 유아용 교재 개발

6) 연합뉴스 <https://m.yna.co.kr/amp/view/AKR20230428016200075>

〈표 1〉 설문 내용

설문 항목	설문 내용	유형
교사 기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기관 현황(지역, 학교명, 학생 수) • 교육과정 • 교사 경력 • 교사 체류 유형 • 제1언어 • 한국어 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서술형 서술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주교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재 •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 미사용 이유 • 주교재 만족도 • 교사용 지침서 활용 현황 • 1개 단원 수업 시수 • 교재 보완되어야 할 학습활동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관심 • 교사의 한류 콘텐츠 활용도 • 한류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 교재에서의 한국 문화 설명에 대한 생각 • 교재 내용 중 일본 상황,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내용 • 일본 상황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문화 요소 • 한국 문화 및 역사 내용 중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 일본 학습자의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교재의 내용이나 주제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서술형 서술형 서술형 서술형

한글학교 현황(지역, 학생 수, 교육과정), 교사 기초 정보(경력, 체류 유형, 제1언어, 한국어 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 교재 학습 활동의 보완점, 교재 만족도, 교재의 한국 문화, 교사용 지침서 활용도, 한류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도, 교사의 한류 콘텐츠 활용도, 교재 내용 중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문화 교육 내용, 일본 상황에서 추가될 문화 요소, 추가될 한국 문화 및 역사 내용, 일본 학습자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주제나 내용에 대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글 설문 도구를 제작하였다.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설문 요청을 구하고, 구글 설문 링크를 전달하여 28명의 한글학교 교사에게서 설문 응답을 받았다.

심층 인터뷰는 1차 설문 결과의 내용을 기초로, 좀 더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한 심화 질문을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질문은 소속 한글학교 현황, 주교재 사용 이유, 문화 수업, 교실 수업에서의 어려움, 일본 맞춤형 교재에 대한 요구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2〉 한글학교 전문가 심층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국가	지역	성명	소속 및 직위
1	일본	츠크바	최○○	일본 코리아문화교류협회 한글 교실 교사
2	일본	오사카	손○○	오사카 온누리한글학교 교사 오사카 스타한글학교 교사
3	일본	도쿄	전○○	도쿄샘물학교(치바현 노다시)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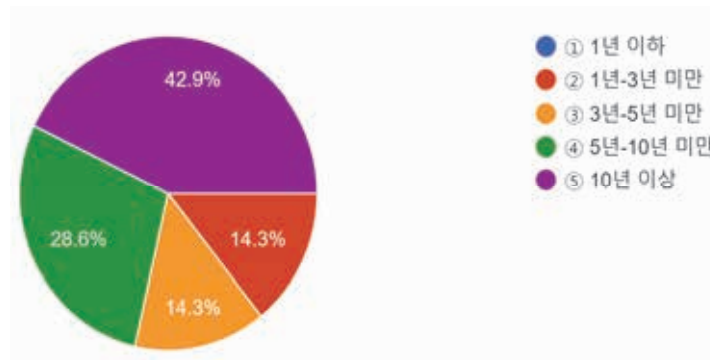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28명의 1차 설문 응답자 중 3명을 선정하여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시간 반 동안 연구진 3명이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차 설문 조사는 일본 한글학교 중 22개 기관⁷⁾의 교사 28명의 응답을 얻었다. 21개의 항목으로 설문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도구 제작 오류 항목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교사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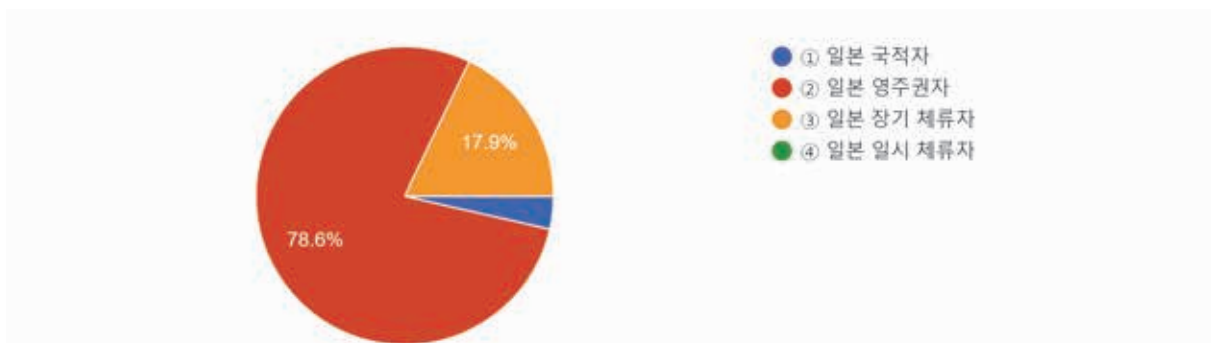
‘일본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미만이 28%, 3년-5년 미만이 14.3%, 1년-3년 미만이 14.3%로 한글학교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들이 약 70%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1] 교사 경력

2) 교사 체류 유형

해외의 교육기관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일본에서의 체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국적자는 응답자 28명 중 1명으로 3.6%이고, 일본 영주권자가 78.6%, 일본 장기 체류자는 17.8%, 일본 일시(단기) 체류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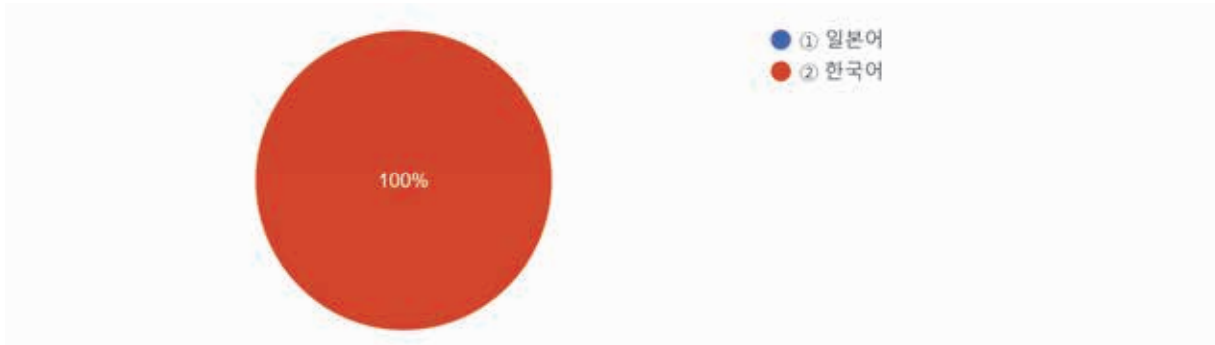


[그림2] 교사 체류 유형

3) 교사의 제1언어

설문 응답자 중, 일본 국적자가 1명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사의 제1언어를 묻는 항목에는 100% 한국어가 제1언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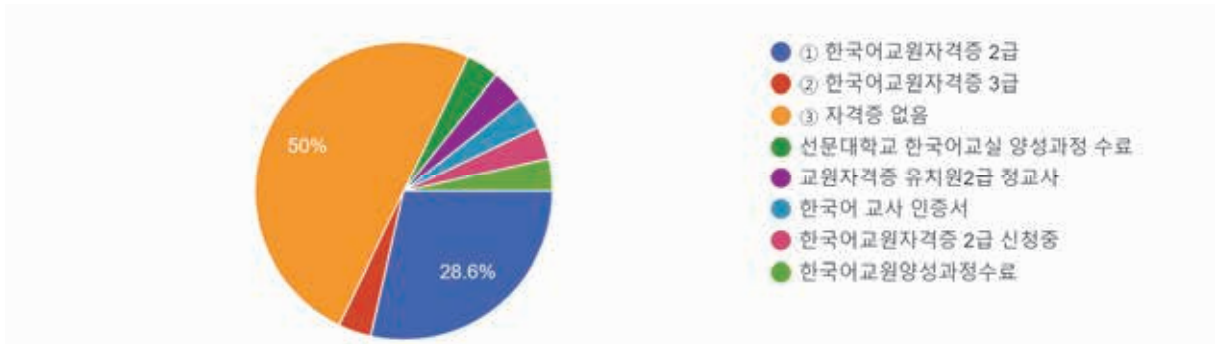
7) 짧은 조사 기간과 개인정보 제한 문제로 일본 한글학교 128개 기관 중 22개 기관 즉 17%밖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는 연구논문을 작성할 때 보완하여 설문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그림3] 교사의 제1언어

4) 교사의 한국어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교사 50%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보유’가 28.6%,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보유’가 3.6%로, 총 32.2%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예정, 한국어양성과정 수료, 한국어교사인증과정 수료,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3.6%)을 보유하고 있는 교원들은 17.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는 한국어 및 교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한국어 교원자격증 보유 여부

5) 재직 한글학교의 학기 구성 및 주당 수업 시수

현 기관의 학기 구성과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서술형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3>과 같이 기관마다 다양하게 도출되었으며 응답을 살펴보면, 학기당 수업 시수가 아닌 1년 기준으로 ‘40주, 매주 2시간’과 같은 응답과 전체 학기 구성으로 응답 등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제출되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볼 때, 한글학교 기관마다 학기 구성(2학기, 3학기, 4학기)이 다양하고 시수 또한 각각각색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2009)에서는 세계 현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글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제 각각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통 기준의 한글학교용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표준교육과정의 일반적 기준과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사 교육과정, 한국문화 교육과정의 시안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학기 구성 및 주당 수업 시수

10주 3교시(40분)/10주 130분/14주 2시간/15주 주당 2시간/16주 2시간/18주 90분/18회90분(성인반)/1학기13주,2학기13주, 주당 2시간 /20회/22주 1주일에 5시간 내지 6시간/22주주당 1시간/24주 5시간 30분/25주 2시간/28주 60분/3학기 (어린이—월2회, 성인 — 월3 회)/3학기 주 1회/40주 3시간/40주 2시간/성인반 주1회 2시간/초등학생 주1회 1.5시간/연 25회 수업(주로 온라인40분수업+대면수업), 문화수업은 90분 수업 연 35회/월 2회 격주로 수업 있음/ 2학기, 클래스당 주 1회 90분,1년 약 35회~40회/1주일 1시간, 마쓰에 교실 격주 일요일 2시간/학기를 나누지 않음. 주당 1시간30분/ 한 학기 18회차, 주당 1회, 90분/한 학기 20주 주당 수업 시수 2시간/한 학기 20회, 격주로 토요일에 40분*3교시/한 학기에 13주 주당 한 시간씩

6) 1개 단원당 수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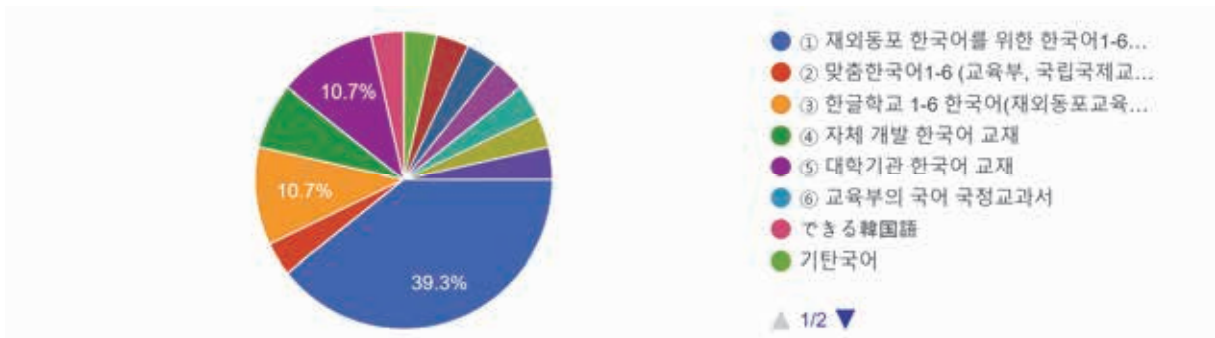
단원당 소요되는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 4〉와 같다. 50분, 1시간, 2시간, 2-3시간, 3시간, 3-4시간, 6시간과 같이 다양한 응답이 나왔는데, 이는 사용하는 교재의 다양성,⁸⁾ 학습자 수준 및 연령의 상이함, 교육과정 표준 모형의 미적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표 4〉 1개 단원 당 수업 시간

1시간/1시간/1시간/1회 120분(40분*3교시)/
 2-3 시간/2-3교시 진행합니다. (아름다운한국어 기준/ 고급은 가나다 한국어 1개당
 2교시)/260분/2교시/2시간/2시간/2시간/2시간. (어린이—3-4시간)/2회/3-4시간/3시간/3시간/
 3시간/3주정도/4시간/4시간30분/50분/50분좌우/6시간/6시간 (응용 연습문제 포함)/단원에 따라 틀리지만 3-4회/성인반 4시간.
 초등학생 4.5시간/어린이교재는 2시간, 성인대상 문화센터교재(세종한국어)는 3-5시간/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2를 사용하여 1과를 공부/

7) 주교재 사용 현황

현재 재직 한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에 대한 질문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학교 1-6(재외동포교육재단) 10.7%,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사용이 10.7%, 자체 개발 한국어 교재 사용이 7.1% 순으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맞춤한국어1-6(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기탄국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 できる韓国語, 세종한국어회화1, 데키루 칸고쿠고(초중급), 아름다운 한국어(초,중급), 가나다한국어(중급2부터 상급)를 사용한다고 각각 응답하였다. 한국 정부의 주관으로 한글학교용 교재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50%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교재들이 일본 현지 및 한글학교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 문항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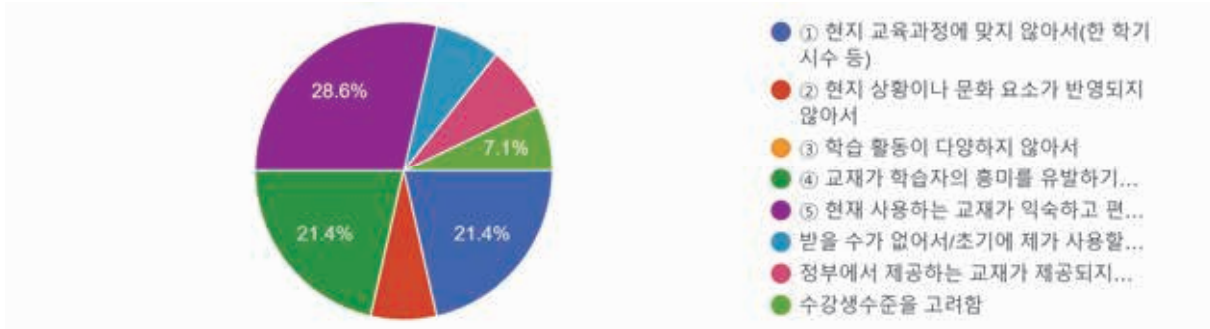


[그림5] 주교재 사용 현황

8) 아래 7)의 주교재 사용 현황으로 볼 때 각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22개 기관에서 약 12종으로 나타났다.

8)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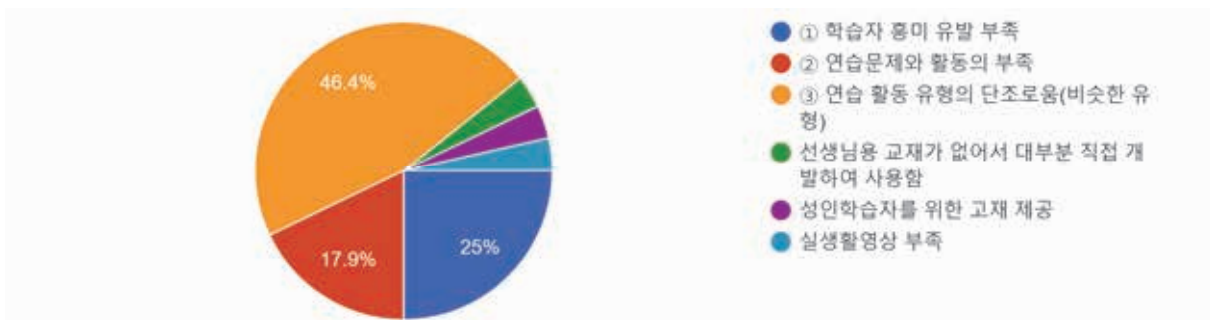
앞선 설문 문항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28.6%가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가 익숙하고 편해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지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서(한 학기 시수)’라는 응답이 21.4%였다. 또한 ‘교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워서’가 21.4%, ‘수강생 수준에 맞지 않아서’가 7.1%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답은 한글학교 학생이 성인 학습자인 경우로 파악된다. ‘현지 상황이나 문화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서’는 7.1%로 일본 및 지역의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14.2%나 되는데, 이 부분은 기관에 대한 문제로 파악되며 세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림6]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재 미사용 이유

9) 교재 학습 활동 관련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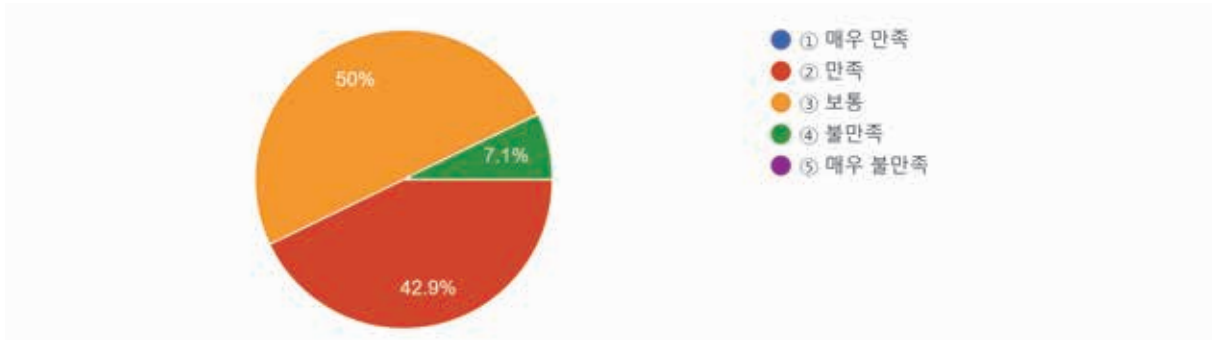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보완할 점’에 대한 응답은 ‘연습 활동 유형의 단조로움(비슷한 유형)’이 46.4%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25%, ‘연습 문제와 활동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7.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제공 필요(3.6%)’, ‘선생님용 교재가 없어서 대부분 학습 활동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다(3.6%)’, ‘실생활을 반영한 영상이 부족(3.6%)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글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연습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교재 학습활동과 관련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

10) 현 사용 교재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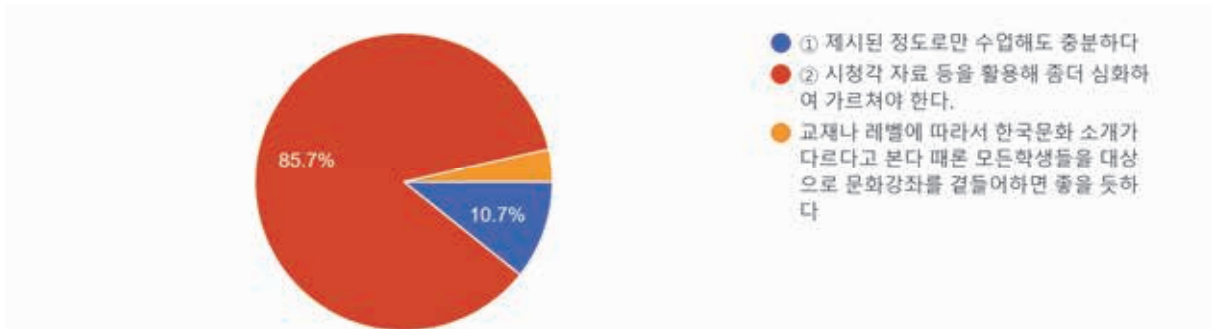
‘현재 사용하는 교재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0%는 교재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이 42.5%, 불만족이 7.1%로, 교재에 대한 보완 및 요구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8] 교재 만족도

11) 교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이 간단한 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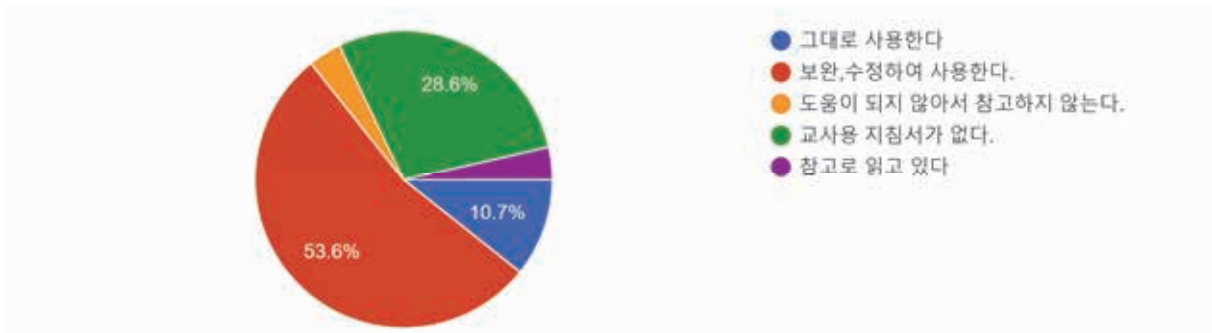
‘현재 사용하는 교재의 한국 문화 설명’에 대한 질문으로 교재에서 한국 문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5.5%의 교사들이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심화하여 가르쳐야 한다’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재 내용을 보완할 한국 문화 관련 정보 및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교재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

12) 교사용 지침서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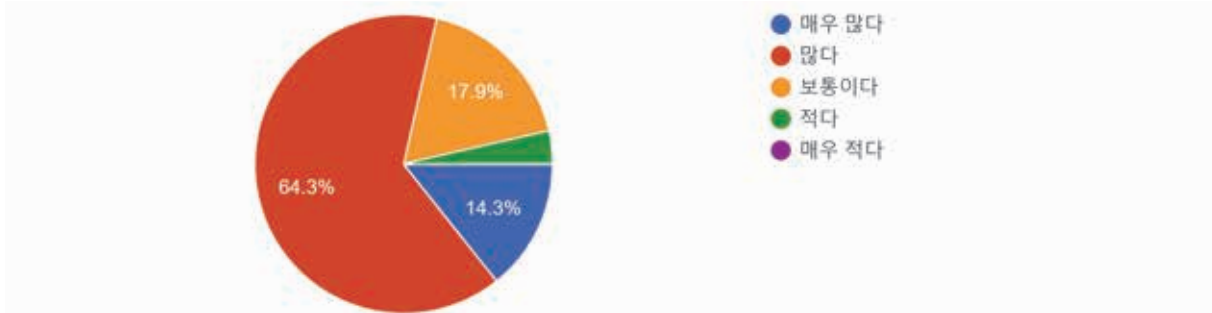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교사용 지침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3.6%가 ‘보완 및 수정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10.7%가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교사용 지침서를 활용하되 보완 및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용 지침서가 없다’라고 응답한 28.6%의 주교재 현황을 살펴보니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사용 2명, 가나다한국어 2명, 일본에서 판매하는 교재 2명’과 같이 교사용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교사용 지침서가 제공되고 있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없다(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명, 아름다운 한국어 1명)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10] 교사용 지침서 활용도

13)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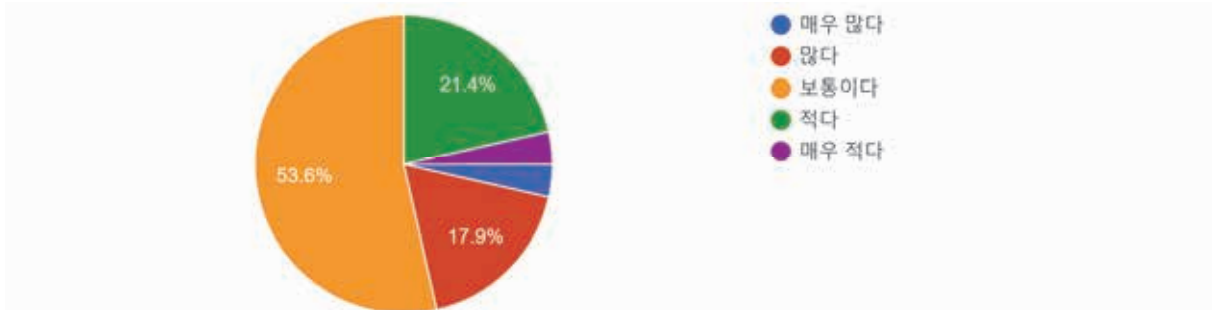
학습자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많다’가 14.3%, ‘많다’가 64.3%로, 학습자의 78.6%, 즉 대부분이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이다’가 17.9%, ‘적다’가 3.6%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학습자와 같은 학습자의 연령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글학교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11]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14) 한류 콘텐츠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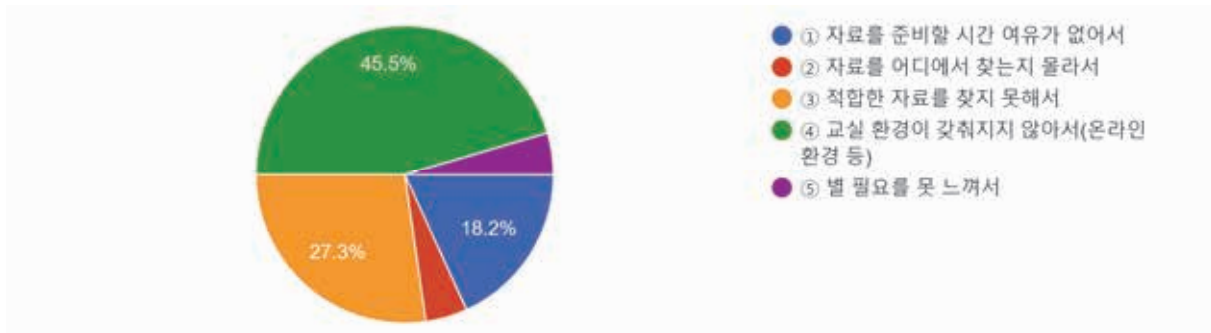
‘13)’과 연관지어 한글학교 수업에서의 한류 콘텐츠 활용도에 대한 질문에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 ‘적다’가 21.4%, ‘보통이다’가 53.6%로 학습자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15)’ 항목에 그 이유를 물었다.



[그림12] 한류 콘텐츠 활용도

15) 한류 콘텐츠 사용이 많지 않은 이유

앞선 질문에서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라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 45.5%가 ‘교실 환경’ 문제로 응답하였다. 또한 27.3%가 ‘적합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18.2%가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로 볼 때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안내·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림13] 한류 콘텐츠 활용도가 낮은 이유

16) 교재에서 일본 상황이나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일본 상황, 일본 문화 관점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써 달라는 서술형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0.7%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기술된 의견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대부분 민감한 내용, 일본과 한국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지양하고 일본 현지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상호문화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요구가 있음이 파악된다.

<표 5> 일본 현지에서 부적절한 교육 내용에 대한 서술형 의견

- ✓ 부모 모두 한국인인 경우도 많지만, 한 부모가 한국인, 한 부모가 일본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양쪽 나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학교에는 부모님이 일본인인 학생도 많습니다. 한일 역사 문제는 역시 다를 때 민감해집니다.
- ✓ 대학에서 사용하는 <파랑새 한국어>를 보면 아직도 ‘코리안 타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상황에서의 부적절함이 아니고 한국에서 각국의 교재를 확인하고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교정 요청을 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문제까지 갈 것도 아니고 문화 정보 자체가 잘못되거나 너무 원론적이거나 옛날 상황을 담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 ✓ 한일 관계 이분법적 내용보다 현지 상황에 맞는 상황 선택
- ✓ 일본의 문화를 소재로 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좁은 의미의 문화는 지양하고 되도록 일반적인 문화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 일본의 문화를 소재로 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한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라 현지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서로에게 예민한 부분보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을 두면 좋겠다.
- ✓ 역사 관련 내용은 민감하죠
- ✓ 역사, 독도 문제, 종교, 나이, 오래된 사진 자료

17) 문화 요소 중 일본 상황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

교재의 문화 요소들 중에서 일본 현지 상황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표 6>과 같다. 일본 현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일본의 ‘배려 문화,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 한국과 일본의 비교 문화,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문화 및 정보, 한일 교류,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 등이다. 이중 과거의 역사 문화보다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문화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한글학교 문화 교육은 현지화를 반영하여 문화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추가 및 보완해야 하며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6〉 일본 현지에서 추가하고 싶은 문화 내용에 대한 서술형 의견

- ✓ 일본어와의 유사점, 차이점
- ✓ 한국 풍습에 관한 내용
- ✓ 일본과 한국에서의 친구의 개념이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내용, 친구 사이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가족 등)이나 실례가 되는 질문을 피하고 실제로 대화 상황이 많은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보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편이 한글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배려의 문화
- ✓ 과거의 한국이 아닌 현재의 한국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조어 같은 경우도 수업에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말샘에 업데이트 되는 연구 결과들이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정리되어 (연구발표가 아니고) 배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민감한 역사 문제
- ✓ 글로벌 문화에서 출발하고 한국어 문화로 심층화 필요
- ✓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교통 이용 문화, 배려 문화 비교(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 문화와는 달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느낄 수 있다든지) 질서문화 등
- ✓ 현재 일본에 살고 있으니 현재의 한국 모습이나 신조어, 유행 등의 지금의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외래어 글자(발음 연습), 한자어 단어 정리
- ✓ 한일 간 문화 교류에 관한 역사와 현재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 ✓ 한일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예를 들어 일본 내 한국어 말하기대회, K-컬처 콘테스트 등 현재 일본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는 여러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학습자들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친밀도와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 재일교포를 위한 한국문화사
- ✓ 교재 내용 중에 한국 역사에 대한 부분이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일본 상황보다 한국 상황에서 추가했으면 합니다.
- ✓ 일본인들이 한국 관광 때 여러 측면에서 실용회화 활용법
- ✓ 청소년들은 K-뷰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 가족 민족의 정에 대한 실례나 내용 등
- ✓ 각 나라에서 살다 보면 그 나라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함께 하길 바란다.
- ✓ 한국과 일본만을 놓고 교재를 개발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식사에 절, 결혼식, 장례식, 어린이날의 차이점, 어버이날의 차이점 등
- ✓ 일본 아이들의 학교 문화를 알려주는 내용도 필요
- ✓ 한국 속의 일본 문화, 관광지, 한국의 교육 등
- ✓ 명절을 지내는 방식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본다.

18) 한국의 문화·역사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한글학교 수업을 위해 ‘한국의 문화·역사’ 영역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서술형 응답 또한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 이외의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내용과 K-POP과 관련한 문화 및 교육 내용, 한국과 일본 간의 연관성이 있는 인물, 문화, 역사, 일본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오인하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특징적이었다. 또한 일본 상황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 문화와 상황에 대한 요구도 공통적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한국의 문화·역사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서술형 의견

- ✓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내용
- ✓ 한국의 문화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 성인 학습자들은 의외로 근대사 이전의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므로 건국신화 등을 포함한 근대사 이전의 역사 내용이 좀 더 첨가되었으면 좋겠음.
- ✓ 한국의 위인전, 동화, 동요 등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예절에 관한 내용
- ✓ 선생님이 사용해야 하는 단어에 대해 가이드가 명확했으면,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식민지'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맞는지 선생님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한국의 지역 특성
- ✓ 한일 연관성 있는 문화나 역사
- ✓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했던 예술인이라든가 교육자의 내용을 더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이유, 추석—송편, 설날—떡국 등등
- ✓ 각 지역의 특징, 음식, 한국의 지불 시스템(키오스크, 카드, 티머니 등), 노래
- ✓ 옛날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또 특이했거나 뛰어났던 아이들의 역사나 문화가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 ✓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 나누어 한국 문화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문화와 새롭게 융합되어 정착된 신선한 현대적인 문화를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된 배경과 이유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 ✓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끈 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간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에 관해
- ✓ 한국의 신학기나 연도가 3월부터 시작하므로 <삼일절>에 대한 내용 정도는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 ✓ K팝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인기 노래를 통한 한글 공부법
- ✓ 일본은 역사를 말하다 보면 팩트를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교과 과정이 역사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 성인반의 경우 뚜렷이 그 경향이 나타납니다. 교재의 하단이나 상단에 명언이나 격언을 제시하듯이 일부 잘못 알려지거나 그릇되게 표기되는(예; 김치, 한복, 트롯트 등) 부분을 추가해주면 어떨지 싶습니다.
- ✓ 음식문화
- ✓ 한일 문화 차이나 협력 협조한 이야기 등등. 예를 들면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들어오게 된 차도 등 문화.
- ✓ 케이팝 배우기
- ✓ 케이팝 성공스토리
- ✓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한다.
- ✓ 지역 소개 등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어디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되었다든지 이 지역에는 이런 문화나 이런 역사가 있다든지, 잘 알려져 있는 경우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의 문화와 음식, 김치만 해도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면 재밌을 거 같습니다.
- ✓ 한류 콘텐츠에서 읽을 수 있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
- ✓ 설날 먹는 음식/쇼카츠(1월1일)에 먹는 음식 또는 한국의 추석에 대해 다름을 얘기해 본다.

19) 일본 학습자의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교재의 주제 및 내용

초등학생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본 상황에 맞는 학원 및 취미 활동의 내용, 가족이나 친척 간의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필요하고, 다양한 국적 관련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마련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재들은 유아동 학습자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한글학교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과 콘텐츠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표 8〉 일본 학습자의 연령 및 특성에 맞지 않는 교재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서술형 의견

- ✓ 예문이 단순 예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좀 더 다양한 예문 콘텐츠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학원 등 취미 활동의 범위가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하는 내용을 조사해서 필요한 어휘로 구성해 주시면 아이들이 실제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일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를 다룬 교재가 있으면 합니다.
- ✓ 연령이나 특성 부분이 아니고 관심도의 문제라서 딱히 맞지 않다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 먹거리 볼거리를 다양하게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 ✓ 성인들에 맞는 문화어 활용 필요
- ✓ 한글학교 학생용(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발행)의 상, 하의 교재가 좀 더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하려 만든 책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쉽게 접근하는 한글학습 교재였으면 좋겠습니다.
-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제작한 교재는 내용을 정리하기 좋고 차분하게 학습할 수 있어서 좋지만 좀 오래된 것이라 한국, 일본 이외의 외국인 학생 이름 및 외국인 학생의 일러스트가 거리감을 줍니다. 한편 최신 교재인 재일동포를 위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교재가 무거워 학생들이 소지하기 힘들어하고, 워크북을 잃어버리며, 내용이 좀 산만하여(조금 잡지 같은 느낌?) 배운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거나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 제가 근무했던 한글학교 학습자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많아 손주와의 관계-돌봄, 중년층의 여가생활과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 민단의 학습자는 연령대가 어른이므로 교재 내용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맞춰 학습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 현재 활용중인 아름다운 한국어 시리즈는 시대에 다소 뒤떨어지는 주제와 표현과 격식체가 너무 실려 현실에 접목해 활용하기가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CD와 교재에 표기되어있는 A, B면 등의 오기 등도 있어 교재의 개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국적 관련 단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1 9과) 저학년이 다양한 국적을 이해하기 어려움
- ✓ 한국에서 집 찾기, 은행 이용 등 한국의 유학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나 변하기 쉬운 주제
- ✓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역사 문제는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 ✓ 서로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인식하길 바란다
- ✓ 글로벌시대 흥미를 갖는 일본인들에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길 바란다
- ✓ ① 세종한국어에 나오는 한국인의 취미 활동.
- ✓ ② 여러 외국인(베트남, 중국 등) 이름이 나오지만 좀 어색함. 맞춤교재를 만든다면 일본인들이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한국의 젊은 세대와 일반인으로 나눠서 콘텐츠를 달리한 교재가 있었으면 한다.
- ✓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가정에서 또는 가족이나 한국 친척을 만났을 때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구성한다.

2.3. 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1차 설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심층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우선 한글학교 운영 기간, 수업 시수 등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1) 각 기관마다 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 2) 주교재 사용과 이유, 3) 문화 수업에 대한 요구도, 4) 한글학교 수업과 운영의 어려움 5) 일본 현지화 교재 개발 시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5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2개의 기관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2인, 학교장 및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1인으로, 총 3인을 선정하였다. 줌 미팅을 통하여 약 2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현황과 교육과정

〈표 9〉 학교 현황과 교육과정

A 학교	B 학교	C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년에 2학기 운영(4월, 9월) • 주말, 일주일에 1회 • 1교시 또는 2교시(35-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년에 3학기제(4월, 9월, 1월) • 한 달에 2-3회 수업 • 토요일 3시간(40분*3회) • 1교시 한국어 • 2교시 한국어 • 3교시 한국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년에 2학기 운영(4월부터 시작) • 한달에 2회, 격주 수업 • 각 반마다 45분 1차시(시간은 탄력적으로 60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급 1개반: 한글을 모르는 반 • 고급반 1개반: 말하기, 글쓰기가 가능한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반: 유치원 • 한글'가'반: 한국어 구사 가능한 학생들, 한글을 배워야 하는 학생 • 한글'나'반: 일본어만 구사하는 아이들 • 초급반: 초등1~4학년 • 중급반: 초등 4학년 이상 • 고급반/토픽반: 초등학교 중, 고급 수준,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반 4-5세 유아반 • 2반 6-8살 • 3반 8-9살 • 4반 9-13살: 3년까지 학습한 경력 및 학생들이 주로 2년 정도 학습함

2) 주교재 사용과 이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와 사용 이유를 물었더니 〈표 10〉과 같이 A학교와 B학교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C학교는 '한글 기초 상/하'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10〉 사용 주교재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2017)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2017)	『한글학교 학생용 한글 기초 상/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2006)

A 교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고 나라의 국기와 같은 이미지 등이 학생들에게 활용하기 아주 좋아요. 교재 만족도 높아요. 2개반 분반이 되어 있고 초/중급반: 재외동포 1-1, 1-2에 영상 및 다른 자료 등을 활용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B 교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신교재를 사용하다가 구버전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재고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불편함이 크게 없어서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기존에 서 왔고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학교 학습자 특성이 문어 능력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워크북이 마련된 교재가 필요한데 워크북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학생이 좋아할 만한 컬러와 흥미 유발하기 좋아요. 신버전은 장소 중심 어휘 제시가 좋아요. 그렇지만 문법 표현 다음 연습 문제가 제시되는 것은 저학년에게는 적합하지만, 고학년에게는 부적합해요. 고학년에 맞는 연습 문제 양과 유형이 필요하고 3학년 이후부터는 교육 내용이 부족해요. 지금까지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3권까지 정도만 활용했어요. 3-1권 문법 표현이 단조롭고 학습 연령에 맞는 연습 문제 및 표현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교사가 보완하여 노트에 따로 추가 활용 문제 제시하고 있어요.

C 교사: 유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한글 기초를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재예요. '1

반 4-5세 유아반'은 교과서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글 자모음 익히기 'ㅎ' 15과까지 진도를 나가며 동영상, 이야기, 동시, 교사가 직접 제작한 PPT 등을 사용해요. '2반 6-8세 반'은 16과부터 시작 자음+모음+읽기 쓰기 한글 기초 3, 받침까지 진도를 나가고 오후에 수업을 해요. '3반 8-9세 반'은 자모음 복습, 한글 기초 (상) 복습하고 한글 기초 (하)로 진도를 나가요. 한 줄/두 줄/세 줄 쓰기, 그림일기/읽기 쓰기 중심/교사들의 자체 제작 교안 PPT를 사용해요. '4반 9-13세 반'은 3반까지 학습한 경력 및 학생들이 주로 2년 정도 학습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2권을 시작하여 진도를 나가요.

온라인에서 최신 버전 교재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버전의 재고 및 기존 교재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 3명의 한글학교 교사 모두 기존에 사용하던 구버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위 인터뷰 내용에서 볼 때, 교사와 기관에게 우선 편한 상황의 교재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현재 교재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기초 교육을 위해 '한글 상/하'가 적합하다고 하였지만 새롭게 개발된 교재에 대한 정보와 교재 배포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문화 수업 현황과 요구도

현재 기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수업의 현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A 교사: 주로 문화 수업을 '한복 만들기, 한복 색칠하기'등을 통해서 색깔 익히기, 한복 입기, 요리 교실(일본과 비슷한 음식, 떡 만들기 등) 활동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렇지만 초급반 '1-1, 1-2' 단계에서는 문화 수업은 잘 활용하지 않고, 스티디코리안에 나온 영상을 활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수업 진행하는 분위기.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여 문화 주제로 문제나 갈등은 없었어요.
- B 교사: 문화 수업은 40분 동안 진행해요. 주교재에 반영된 문화 수업은 너무 간단해서 문화 수업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 및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한국의 이해 문화 교재(워크북 활용도 높음)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동 교재에서의 문화 내용은 아이들에게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이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반은 학생들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에 반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은 벽찬 내용의 문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거북선 만들기의 경우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한일 주제로의 내용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룰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쉬운, 친구와의 갈등 관계로 예를 들어요. 학생들의 특성(한국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있기 때문에)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업 내용을 뺄 수는 없어요. 위인들에 대한 내용은 어렵고 재미없게 구성되어 있어요. 글이 많은 설명은 학생들에게 접근이 떨어지므로 그런 자료는 피해요. 그리고 임진왜, 거북선 등의 주제들이 수업하기에 어려워요.
- C 교사: 교재를 통한 문화 수업이 아니라 문화 수업의 기본을 진행해요. 한복 입기, 새해 인사, 기본 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전통문화놀이 투구놀이, 민속놀이, 음식(송편, 떡치기, 두부만들기) 등을 주제로 체험해요. 교재보다는 실물 위주의 문화 수업 즉 입는 것, 쓰는 것, 말하기 등으로 활용을 해요. 이 기관은 중국 선생님, 일본 선생님, 한국 선생님 함께하는 구조라서 이중문화교육방식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언어와 문화로 같이 수업해요. 기본 내용만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각 나라의 상황별로 진행하며 곤란한 주제나 내용은 접근하지 않는 구조예요.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동영상 및 실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필요해요.

문화 수업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고전 문화에 고착된 문화 내용보다는 현대 한국 문화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옛날보다는 현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교사도 현대 문

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항상 한국 문화를 고전 문화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어려움이 있고 상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한국 식문화, 변화한 최신 한국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교육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화 교육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기본 교재의 내용에서도 문법 문형을 담은 다양한 예문을 일본과 한국과 비교하거나 유사한 점을 예문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일본, 한국 문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글학교 수업과 교실운영의 어려움

교사들에게 한글학교 수업과 교실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교사: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이 어려워요. 대부분 부모의 의지로 한글학교에 오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자발적 한국어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이 커요.
- B 교사: 정서불안과 같은 문제 행동의 아이들이 있을 때 어려워요. 특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는 시스템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 C 교사: 학습자 동기 유발하는 점이 어려워요. 또 저희 기관은 안정적인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이동하거나 변동되는 문제 있잖아요.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지원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글학교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 어려운 유아, 초등학생을 담당할 때에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수는 아니지만 문제 행동 학습자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안 등 교실 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교수법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일본 현지화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도

일본 한글학교와 인터뷰에 응한 한글학교 교사들 모두 한국 정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다양한 범용 교재를 쓰고 있었다. 1차 설문 결과에서도 일본 한글학교를 위한 교재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문 응답자가 많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도 그러한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3명 모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A 교사: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현장에 딱 맞아요. 보완된다면 스티커 붙이기 등과 같은 실제 활동할 학습 재료 및 자료들이 삽입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 B 교사: 일본 맞춤형 교재가 필요해요. 일본어로 설명하는 내용이 같이 제시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교재 내용도 일본 문화권을 예로 들어서 예문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 C 교사: 유아 눈높이에 맞는, 연령에 맞는 교재가 필요해요. 유아 대상, 어린이 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필요해요. 신나는 한국어 교재가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 맞지 않아요. 온라인 및 영상 활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용 교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글학교 교사 모두 학습자 연령과 특성을 반영하고 일본과 지역의 현지 상황을 반영한 교재 개발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에게 범용 교재를 제공하고 현장에 맞게 재구성한 맞춤형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일본 한글학교 범용 교재 활용 방안

3장에서는 일본 현지의 요구에 맞는 범용 교재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활용 방안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 교재이자, 최근 수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재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학교별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교육과정의 설계 없이 교사 재량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3.1. 학교별 교육과정 설계 필요

교육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한글학교 교육의 준거로 삼을 만한 교육과정이 미비한 형편이다. 한글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2008)’와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해외 한글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요구가 높다. 따라서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이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한글학교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이 다양하고, 지역별로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 한글학교 운영 형태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별 교육과정 개발의 좋은 사례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표준교육과정’이다. NAKS의 경우 1992년에 처음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어 2012년, 2021년에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미국의 한글학교가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미국의 한글학교는 NAKS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들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NAKS의 표준교육과정과 같은 한글학교용 교육과정이 국가별로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가별 교육과정 개발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연구 인력이나 재정 여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2022년 기준 한글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전 세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협의회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일이고, 현재 일본 지역의 표준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학교별이라도 교육의 목표, 교육 시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학기, 학기별 수업 횟수, 수업 시수 등 정도만 계획하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학기, 학기별 수업 횟수, 수업 시수 등은 계획되어 있지만, 학습자의 단계별 목표나 이에 따른 교수요목, 평가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수요목은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것이다. 교수요목은 이미 교재 제작 단계에서 설정되어 있지만, 한글학교에서 교재의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교실 수업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순서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한글학교의 경우 그때그때 담임 재량으로 수업 단원을 선택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모 한글학교는 부모들이 학습자의 언

어 수준을 알려 주면, 교사가 이를 참고하여 교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단계를 선택하고, 그중에서 일부 단원을 선택하여 교육한다고 하였다. 물론 교사의 교수 역량이 높을 경우 교육과정의 미비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도가 탄탄하고 구체적일 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교육 역시 구체적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균질적인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층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이 구어는 유창한 편이지만 문어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 한글학교의 경우 학습자들이 모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읽기, 쓰기 기능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구어와 문어의 불균형은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런 경우 기능별 수업의 비중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글학교의 경우 매년 학습자 수나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달라져 균질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과정 체계 마련은 필요하다. 학습자의 연령, 한국어 숙달도,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설정한 후, 단계별 교육 목표, 수업 시수,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본으로 상황별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3.2.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범용 교재 활용 방안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교재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연습 활동과 문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3.2에서는 두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1. 연습 및 과제 활동의 보완 방안

설문 문항 중 ‘교재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보완할 점’에 대한 응답이 ‘연습 활동 유형의 단조로움(비슷한 유형)’,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 ‘연습 문제와 활동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습 활동을 보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2-1)』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단원 구성은 ‘이야기해 봐요 - 배워 봐요 - 듣고 말해 봐요/듣고 써 봐요 - 읽고 말해 봐요/읽고 써 봐요 - 함께해요 - 문화를 배워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과, 6과, 9과, 12과는 ‘이야기해 봐요 - 말해 봐요 - 들어 봐요 - 읽어 봐요 - 써 봐요 - 문화를 배워요’로 구성되어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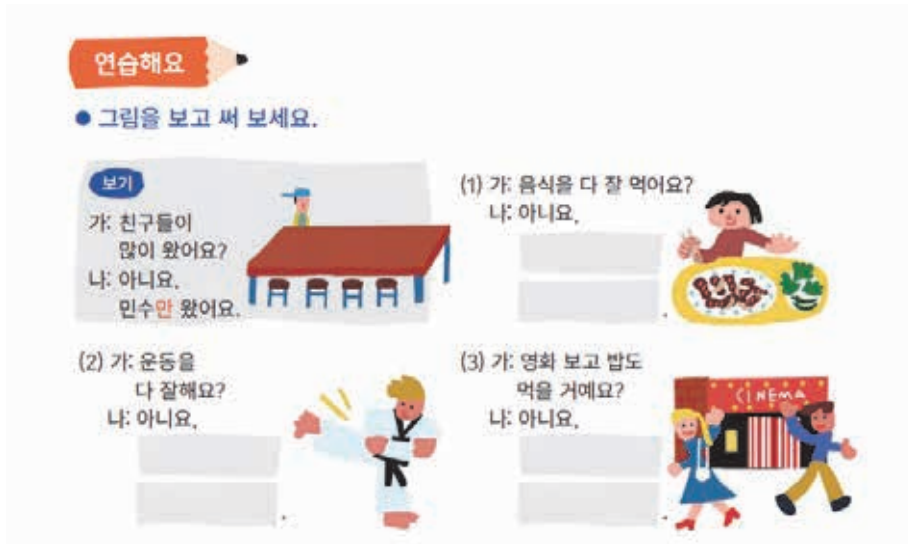
9) 3과, 6과, 9과, 12과는 복습 단원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분리하여 연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연습 활동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구성 체계	구성 내용	활동 유형
이야기해 봐요	대화문	
배워 봐요	어휘, 문법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연결하기, 어휘 찾아 쓰기 문법과 표현: 그림 보고 쓰기
듣고 말해 봐요/ 듣고 써 봐요 ¹⁰⁾	듣기를 중심으로 한 기능 통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고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듣고 맞는 답 고르기,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 기계적 드릴, 유의미한 드릴, 그림 보고 말하기, 인터뷰
읽고 말해 봐요/ 읽고 써 봐요	읽기를 중심으로 한 기능 통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고 답하기, 읽고 O/X 하기, 읽고 맞는 답 고르기, 읽고 순서대로 나열하기 읽고 모방하여 쓰기, 빈칸 채우기 과정 중심 쓰기
함께해요	과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이나 그리기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동
문화를 배워요	한국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소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설문 조사에서 ‘연습 활동 유형의 단조로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 ‘연습 문제와 활동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연습 활동 유형이 반복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활동 유형의 반복 양상은 ‘배워 봐요 - 듣고 말해 봐요/듣고 써 봐요 - 읽고 말해 봐요/읽고 써 봐요 - 함께해요’까지 각 단계별로 계속 나타난다.

먼저 <문법과 표현>은 모든 과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보고 쓰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문법과 표현>의 연습 활동



반복되는 패턴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내용 기억을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지루한 느낌을 주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동 학습자의 경우 특히 학습에 대한 흥미가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흥미 요소는 중요하다. 문형 연습을 쓰기 활동으로 한 것은 문어에 약한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형 연습을 쓰기 활동으로 진행하되, ‘통제된 쓰기 연습 활동, 유도된 쓰기 활동’ 중에서

대치할 만한 활동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듣고 말해 봐요/듣고 써 봐요〉의 활동은 ‘듣고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활동, 듣고 연결하기, 질문에 답하기, 듣고 맞는 답 고르기,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 기계적 드릴, 유의미한 드릴, 그림 보고 말하기, 인터뷰’ 중에서 단원별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초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연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5개 단원을 구성하려면 활동 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읽고 말해 봐요/읽고 써 봐요〉의 활동은 ‘읽고 답하기, 읽고 ○/× 하기, 읽고 맞는 답 고르기, 읽고 순서대로 나열하기’와 ‘읽고 모방하여 쓰기, 빈칸 채우기, 과정 중심 쓰기’ 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활동들도 초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활동 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역시 활동 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습 활동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심층 인터뷰에서 “교재의 활동이 저학년 학습자에게는 적합한 연습 활동이나 고학년 학습자에게는 양이 너무 적다. 저학년과 고학년은 학습 능력이 다르므로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맞는 연습 유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이유는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과제(task)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말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드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친구들과 함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가: 뭐가 되고 싶어요?

나: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 말하기 연습 활동은 학생들의 대답을 고정해 놓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여 대답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형태가 아닌 의미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짧은 대화문 연습으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역할극이나 가벼운 주제의 발표 등을 활용하여 과제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쓰기 활동도 다음과 같이 ‘읽기’와 연계하여 읽은 내용을 모방하여 쓰는 간단한 쓰기 활동이 대부분이다.

1. 글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하세요.

읽기 텍스트 제시

- 선택형 답항 제시

2. 여러분 가족의 꿈은 뭐예요? 써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한국어 숙달도는 낮지만, 학습 능력이 높은 고학년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어 능력이 부족한 교포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쓰기 활동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진 쓰기, 흥미로운 쓰기 활동이 필요하다. 고학년의 경우 장르별 자유 작문 수업이 필요하며, 이때 교사가 ‘쓰기 전- 쓰기 - 쓰기 후’ 단계를 고려한 과정 중심 쓰기 수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3.2.2. 문화 수업의 교수-학습 항목 추가

한글학교에서 문화 수업은 다른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수업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에서 문화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학교용 교재에는 ‘문화’ 코너를 따로 두어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3.2.2.에서는 ‘문화’ 코너에 제시된 문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 교재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도 다른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배워요’,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문화’라는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¹¹⁾

1)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역사’ 추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6)』는 2020년 개정되면서 문화 항목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교재의 <일러두기>에서도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국의 최신 문화의 흐름을 교과 내용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관점에서 교재 내용을 전면검토’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 <스마

11)

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1-1	이름, 가족 어휘, 한국의 학교(교실), 학교생활(과목, 운동회)
1-2	나이, 생일, 사계절, 해운대에 가 보세요, 한국의 동물, 설날, 태권도, 한국의 음식, 슬래잡기
2-1	인기 있는 직업, 스마트폰 게임, 동요(나는 나는 자라서), 몇 시에 학교에 가요?, 손가락, 떡볶이, 반말과 존댓말, 부채춤, 율놀이, 어린이날, 공기놀이, 밥그릇, 방학
2-2	태극기, 한국 노래(사과 같은 내 얼굴), 스승의 날, 세종대왕과 한글날, 어버이날, 동요(병원놀이), 밥, 흥부와 놀부, 제기 만들기, 학교 급식, 김치, 한국의 자동차 운전석, 동요(자전거)
3-1	띠(12간지), 김밥 만들기, ‘고기잡이’ 노래, 한국 돈의 인물, 노래(지금통), 하회마을, 명절 음식, 응급전화번호, 심청, 친척, 율놀이, 쓰레기봉투, 탈춤 공연
3-2	돼지꿈, 여러 가지 기념일, 치킨 배달,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안 됨, 길거리 음식, 가족 캠핑, 한국의 병원, 삼계탕/팔빙수, 자기 컵 사용, 장래 희망, 단군
4-1	인사 관련 몸짓 언어, 이색 직업, 한국 초등학교들의 동시, 성격 어휘, 팔빙수와 붕어빵,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씨름, 아이들의 놀이(전통놀이), 제주도, 지역 축제, 빨리빨리 문화, 외국인들이 재미있어 하는 한국의 모습
4-2	인기 있는 가수들 공통점,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청소년 여가활동, 이모티콘, 유실물 관리소, 응급신고, 민간요법, 자린고비 이야기, 돼지 저금통, 아름다운 가게, 아나바다 운동
5-1	남산과 한강, 서울의 외국인 마을, 이웃사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만화 박물관, 사물놀이, 한국의 IT, SNS, 죽마고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저씨/아주머니/이모님(존댓말), 세종대왕
5-2	아리랑, 12간지, 동요(섬집 아기), 청개구리 이야기, 한석봉, 서당, 시(정채봉 ‘강자와 약자’), 장인과 ‘장이’, 세계의 우주인들, 사라진 직업, 옛날 통신수단(봉화, 파발), 과학기술(거북선)
6-1	시(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날씨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방법, 한국의 건축양식, 독도, 정형시(송순의 ‘십 년을 경영하여’), 한국의 궁중음식, 한국의 전통 계량 단위, 침성대, 재능 기부, 한국의 예술가들, 아이돌 문화와 청소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작가
6-2	틀려요/달라요, 한국식 이름, 시(윤동주 ‘서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명언, 한국의 10대 발명품, 아끼고 사랑해야 할 아름다운 강산, 과학 상식 퀴즈, 소설 감상, 소문 관련 속담, 한국인의 약어, 한국인의 토론 문화

트폰 사용), 〈길거리 음식〉, 〈쓰레기 분리배출〉 등 최신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는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체성 교육에서 중요한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은 미미한 편이다. 범용 교재라는 특성과 지역에 따라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역사’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문 조사나 심층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므로 〈3.1절〉에 대한 내용 정도는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일 역사문제가 민감하기는 하지만 안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김양현(2020:75)도 재외동포 학습자 교재 분석 결과로 ‘학습 대상자가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정서 같은 한국의 특징들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와 재일동포(식민지 시대의 역사)의 차이’ 등을 언급했다. 따라서 특히 일본과 연관된 역사적 기념일인 〈3.1절〉, 〈광복절〉은 필수 문화 수업으로 넣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어린이 날〉(2-1), 〈스승의 날〉(2-2), 〈한글날〉(2-2) 등의 기념일이 문화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의 하나로 추가해서 역사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인 학습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상호문화주의적 관점, 비교문화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한글학교 교사들도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안이 필요하다, 설날 먹는 음식/쇼카츠(1월1일)에 먹는 음식 또는 한국의 추석과 다름을 얘기해 본다, 한·일 문화 차이나 협력 협조한 이야기, 한·일 문화교류 내용 필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정란·이해영(2014:286)도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는 문화 내용을 구성, 기술하는 데 있어서 Seelye(1988)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한국 문화 전달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태어나서 성장한 현지의 문화와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3.1절〉과 〈광복절〉의 의미, 일본에서 〈광복절〉의 의미 등을 비교해 보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도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으나 ‘독립’을 한 나라들이라는 것을 학습하고, 한국도 식민지 역사를 가졌으나 ‘독립’을 위해 선조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던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역사가 굴욕적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재 한국을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시기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2) 현대적인 문화 항목 추가 확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 교육은 흔히 ‘전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통’적인 문화 요소 학습은 중요하다. 현재 모습의 뿌리는 ‘전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간을 아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며 가르치기에는 한글학교의 학습자들 대부분이 아동이며 현재 한국의 상황도 많이 변화했다. 일례로 한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명절에 한복을 입고, 한국의 차례 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명절에 한복은 거의 입지 않으며, 차례도 지내지 않거나 간소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¹²⁾ 이는 명절에 대한 인식이 차례나 한복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가족·친지들과 모이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일러두기〉에서 ‘최신 문화의 흐름을 담았다’고 언급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2)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 70살 이상 응답자는 27.8%가 제사 폐지에 동의한 반면, 20대 응답자는 63.5%가 제사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분석 조사 연구, 2021.09.01.,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91, 2023.05.13.

따라서 두 번째 문화 학습을 위한 교재 활용은 현대 문화 항목의 추가 및 확대이다. 현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최신 문화 항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더 밀접한 항목의 추가와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4-2)』(4-2)에는 <아나바다 운동>이 수록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나바다 운동>이 수록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림 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4-2)』<아나바다> 설명

아나바다 운동은 물건을 아끼고 다시 사용하는 캠페인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라는 말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말이에요. 못 쓰는 청바지를 가방으로 다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룩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요즘 한국은 공원 벼룩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 못지않게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¹³⁾ 따라서 <아나바다 운동>과 함께 <당근마켓>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에 대한 추가 확대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는 한국 지역에 대한 주제로, <해운대>(1-2), <하회마을>(3-1), <제주도>(4-1), <지역 축제>(4-1), <남산과 한강>(5-1) 등이 있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도 “지역 소개 등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어디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되었다든지 이 지역에는 이런 문화나 이런 역사가 있다든지”, “잘 알려져 있는 경주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의 문화와 음식, 김치만 해도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다” 등의 제안이 있었다. 물론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학습하면 좋겠지만, 기존 주제에 지역적 특색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훨씬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계절>(1-2)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마다 날씨의 편차가 좀 있는 편이다. ‘대구’는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훨씬 더워서 여름의 최고기온 기준은 ‘대구’이다. 그래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 ‘대프리카’로 불리기도 한다.

13) 당근마켓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주간 이용자 수(WAU)는 1200만명, 월간 이용자 수(MAU)는 18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당근마켓 측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당근마켓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용,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 돌파, 매일경제, 2022.06.14.,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48897>, 2023.05.13

〈그림 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2) 〈사계절〉 설명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요.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꽃이 많이 피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더워요.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나 계곡으로 피서를 가요.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하고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겨울에는 춥고 눈이 와요. 스키를 타러 스키장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부산은 겨울에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다.¹⁴⁾ 부산과 같은 위도이자 바닷가 도시인 목포는 연평균 눈이 내리는 일수가 26.1일이다. 부산의 4.1일에 비해 훨씬 많다. 지형적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지역별 계절 특징을 〈사계절〉을 공부할 때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의 지역별 사계절과도 비교해 본다면 훨씬 다채롭고 흥미롭게 〈사계절〉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수업을 위한 교재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활용 예시들은 교재 활용의 원칙과 방향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며, 활용 방안의 내용이 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일본 한글학교를 위한 범용 교재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현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용 교재를 현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안들이 계속 모색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들이 일본 현지화 교재 제작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그 기초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14) 기상청은 '눈일수'를 제공합니다. 눈, 소낙눈, 가루눈, 눈보라 등 어떤 형태로든 눈이 목격된 일수입니다. 부산의 30년(1991~2020년) 연평균 눈일수는 4.1일입니다. 최근 10년은 2.9일, 최근 5년은 2.2일에 불과합니다.

김원철, 눈 훑날리자 재난 문자...부산은 왜 겨울에 눈이 안 쌓일까, 인터넷 한겨레, 2022.12.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554.html, 2023.05.13.

■ 참고문헌 ■

- 강승혜. (2012),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7, 1-39쪽.
- 교육부(2009)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1),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1-2),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2-1),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2-2),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3-1),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3-2),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4-1),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4-2),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5-1),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5-2),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6-1),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교육부(202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6-2), 국제한국어교육재단.
- 권용혜(2021),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항목 연구, *반교어문연구* 58, 반교어문학회, 355-387쪽.
- 김경근 외(2008),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 수정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령(2019), 일본 한글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3-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95-230쪽.
- 김선정(2009), 한국어 교재, 무엇을 현지화할 것인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김양현(2020), 아동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 분석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일본어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철, 눈 흘날리자 재난 문자...부산은 왜 겨울에 눈이 안 쌓일까, 인터넷 한겨레, 22022.12.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554.html, 2023.05.13.
- 김은경, 정호선, 유승원(2022),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67-76쪽.
- 김은경, 정호선, 유승원, 오현아(2020),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66-77쪽.
- 마키노가르로(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요인 - 한일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선(2015), 일본 지역 한글학교 교재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집(JISRD)*, 6권 6호
- 안경화·조현용(2009), 현지화 교재의 단원 구성 방안 - 인도네시아 대학권 한국어 교재의 경우,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37-1, 359-387쪽.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분석 조사 연구, 2021.09.01.,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tSn=704891, 2023.05.13.
- 오지혜(2022),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표준화와 현지화의 문제, *세계한국어한마당 국제학술대회, INK-KLACES 분과/발표2*
- 요시다 카즈에(2016),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요시다카르에(2016),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연구 - 관서 지방 어린이 토요 학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향, 유은미(2022), 국외 중등교육기관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 변인 연구,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28-39쪽.
- 이미혜(2009), 베트남 지역 한국어 현지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 129-149쪽.

- 이정란, 이해영, 이민경, 씨리랏 씨리랏(2018),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과서 개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73, 371-393쪽.
- 이정란 · 이해영(2014),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56, 이중언어학회, 267-290쪽.
- 이화숙 · 김남경(2018), 재외동포대상 한글학교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7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116-139쪽.
- 정영근(2009),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총론 및 각론) 연구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 홍성용,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 돌파, 매일경제, 2022.06.14.,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48897>, 2023.05.13.